

## “신천지 전수조사·中 유학생 격리·확진자 밀착대응”

### 도, 코로나19 대응 및 긴급조치

#### 확진자 진료·감염 차단 최선

#### 종교단체·유학생 모니터링 지속

#### 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 확보하고

#### 감염지역 마스크 수급 조치 강화

#### 천안 선별진료소 6개소 운영 중

#### 드라이브스루·24시간 진료 가능

충남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유증상자 검사 및 확진자 병상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현황과 조사결과, 향후 도의 대응계획을 밝혔다. 충남도는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도민 불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시·군에서 이동동선을 즉각 공개하고, 도에서 총괄 상황과 확인된 경로를 지속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지난달 27일 마친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결과 관련시설 66개소에 대한 방역 완료 후 숙소 8개소를 제외한 58개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유증상자 및 확진자는 격리 및 입원 조치하고, 그 외 신도와 교육생은 2주 동안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일까지 입국한 809명의 중국인 유학생 중 관리해제된 338명을 제외한 471명에 대해 대학 기숙사와 자가격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병상

확보 ▲방역시설 운영 강화 ▲마스크 특별공급 ▲다중이용시설 휴관 ▲투 트랙 대응체계 마련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내 4개 전담병원(천안·공주·서산·공주의료원)을 통해 187병상 439병실을 확보하고,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지정·운영을 검토한다. 또 천안·서산·논산·당진·아산 등에 국민안심병원 8개소를 지정해 운영하며, 마스크 13만개를 확진자 발생지역과 다중 접촉 업무종사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다중이용시설 819개소를 휴관하고 도내 4개 공립에

솔단의 공연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학원과 교습소 등 2815개소를 휴원 조치해 다중의 밀집을 예방한다. 도는 천안지역의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충청남도 비상방역대책단을 구성, 상황 종료 시까지 본청의 비상방역상황실과 천안의 현장사무소를 투트랙으로 운영한다.

양 지사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발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민과 함께 현장을 지키겠다”라면서, “도와 시·군,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모든 상황과 정보를 도민과 공유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천안시 선별진료소는 모두 6개소로, ▲동남구보건의료 선별진료소 ▲서북구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2개 라인 ▲단국대부속병원 ▲순천향천안병원 ▲천안의료원 ▲충무병원이 해당된다. 이 중 동남구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북구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4개 민간 진료소는 24시간 운영된다.

/손유진 syj0319@korea.kr



**마스크 만드는 자원봉사자** 3일 태안군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바느질 동호회원인 소영YOU 회원이 재봉틀을 이용해 코로나19 예방용 면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제작한 마스크는 6·25참전용사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한다.  
 사진/태안군자원봉사센터 제공

## “위기 극복하고 새로운 100년 역사 열 것”

### 3·1절 맞아 독립기념관 찾아

### 애국선열 나라사랑 계승 다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일 제 101주년 3·1절을 맞아 독립기념관 및 유관순 열사 추모각에 참배했다.

이번 3·1절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규모 기념식은 생략했으며 참배 장소와 버스에 대해서는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오늘은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3·1운동의 정신을 도민정신으로 승화·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자랑스러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원년”이라며 “애국충절의 분향 우리 도가 새로운 100년의 원년을 맞아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충남도가 선도적 역할을 맡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3·1운동의 분산이자 독립운동의 성지인 우리 도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앞장서서 극복해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날 3·1정신을 승화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표우열 운영위원장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운영지원과 041-635-3513

## 조류독감 완벽 차단...방역 '바짝'

### 예년보다 철새 복상 빨라져

### 3월말까지 특별방역 강화

충남도가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완벽 차단을 위한 막바지 방역 활동에 고삐를 죄다. 겨울철새의 이동 경로 상에 위치한 충남은 매년 철새 복상을 시작하는 2월부터 3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로, 겨울철새의 복상이 빨라지고 있다. 실제 2월 서식조사를 보면 예산 예당저수지에 7만여 마리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관찰, 서식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서식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말까지 특별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철새도래지(19곳)에

대한 소독차량 동원 ▲축산 관련 차량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진입 통제 및 우회 안내 ▲가금농가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문자 발송 등 위협요인 접촉을 최소화한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낚시객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낚시금지 등 출입금지 현수막 추가 설치 ▲언론 및 반사회보, 문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교차 오염을 차단한다.

아울러, 농장 진입로 생석회 추가도포, 농장 입구 차단 및 철저한 소독을 통해 농장단위 방역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도 조류인플루엔자(AI) 없는 청정 충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5

## 도민여러분, 지금부터 2주가 중요합니다

### | 도정 톨아보기

### 충남도, 코로나 방역 사투

### 앞으로 2주 감염차단 고비

### 소상공인, 약자에 큰 관심을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앞으로 2주 동안 고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감염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세계 최고의 초(超) 연결사회를 헤집고 있는 코로나에 우리는 지혜와 공동체 정신으로 침착하게 맞서야 한다. 그동안 도민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행동수칙을 잘 지켜주었다.

방심은 금물이다. ‘나 하나쯤은’이라는 안전 불감증은 바이러스를

증식시킬 것이다. 지쳐가고 있는 단절사회의 장막만 쌓을 뿐이다. 앞으로 2주 동안은 지역 간 이동을 삼가야 한다. 종교행사, 다중이용시설 방문도 자제하고 동창회나 동아리 모임 같은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장 큰 방역대책은 도민 여러분의 생활실전에 달려 있다. 국민감염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막연한 두려움과 잘못된 정보를 경계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으로 잃을 것은 신뢰와 공동체다. 바이러스가 노리는 건 무수한 생명을 빼앗는 것과 끝내는 소통과 생활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과 인내, 공동체의 굳건한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 무엇보다 이웃에 대한 연대의 마음과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얼마 전에 보여주었다. 충

남도는 중국 우한의 교민의 아산 임시생활시설을 2주 동안 운영하며 마지막 교민이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정성껏 돌봤다. 아산 초사2동 마을 주민과 아산시민의 포용정신이 더해져 마침내 2주간의 격리를 끝마쳤다. 코로나와 싸운 값진 승리였다.

앞으로 2주, 철저한 개인과 대중방역은 물론 수술적, 가짜뉴스의 병폐에도 의연히 맞서야 한다. 무너진 국민건강 회복의 가장 중요한 고비다.

절박한 경제 문제는 나눔과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역화폐 이용하기부터 임대료 낮추주기, 꽃사주기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아르바이트 중단 종사자와 저소득층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더불어 사는 충남의 경제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





#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전국 최초 도비 투입

공원 등 159개소 150억 지원  
재산권 보호·합리적 도시계획 추진  
“일몰 전 누락시설 방지 철저”

충남도가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비를 연차적으로 투입,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

이번 도비 투입은 전국 최초 사례로, 도시공원 자동 실효에 대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오는 7월 장기미집행 일몰 대상 공원은 총 159개소, 11.9㎢이다. 도는 도심 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해소, 주민 휴식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우선관리지역 50개소(3.2㎢)를 선별, 향후 5년간 총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아산 권곡문화공원 ▲서산 석림근린공원 ▲논산 채산근린공원 ▲예산 창소근린공원 ▲태안 환동근린공원 등 총 5개 시·군 5개 공원이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올해의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올해 30억원의 도비와 시·군비 70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입, 실효성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도는 실질적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 꼭 필요한 시설을 공원에 배치하는 등 주민 이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 및 조기 조성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사전 해제와 함께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일몰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일몰 이전 누락시설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이내 사업을 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지정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건설정책과 041-635-4623

## 도정만평

설인호



## 도내 대학에 ‘코로나19 방역비’ 긴급 투입

방역품, 유학생 이송·격리 비용 등 대학-지역사회 손잡고 차단 총력

충남도가 중국 유학생 입국 증가에 대비해 도내 대학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비를 긴급 지원한다. 도는 3월 대학 개강에 앞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대학별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난 14일 도내 대학들의 의견을 검토·반영해 예비비 12억 원을 투입,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공항·격리시설 유학생 수송 버스 임차비 등 차량 이

송 비용 ▲격리시설 난방비 및 도시락·생수·비상약품 등 임시보호시설 격리 비용 ▲방역소독제·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 및 방역 물품 비용 ▲열화상 카메라 등이다.

현재 도내 중국 유학생 수는 20개 대학 3307명으로 이 가운데 방학 기간 중국으로 출국한 학생은 2604명이다. 출국한 유학생 중 이미 입국한 학생은 523명이며 입국 예정자는 1104명이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는 “중국 유학생들이 공항에서부터 별도의 수송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입국 후 14일간은 등교 중지 기간으로 뒤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에는 도내 대학 관계자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도내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한 후 대학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은 중국인 유학생 및 재학생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지원과 임시 격리시설 마련 등을 도에 요청했다.

이에 도는 시·군과 함께 개별 대학의 기숙사 수용이 어려울 경우 인근 숙소나 시설 활용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법무담당관 041-635-3237

## ‘친환경 벌채’ 모범사례 제시

### 도유림 생태 환경 보전 모색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소장 정현기)는 지난달 28일 보령시 도유림 내 친환경 벌채 50ha를 완료했다. 올해 친환경 벌채지는 생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띠 형태의 수림대와 원형 잔존구역을 적절히 배치했다. 야생동·식물 서식처 제공 등 산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영향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벌채지와 벌채지 사이 띠 형태의 수림대는 20~70m, 원형 잔존구역은 50m로 고르게 배치해 친환경 벌채 기준을 준수했다.

또 최근 밀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를 위해 벌채지 내에 주요 밀원수종인 아까시·헛개·읍나무를 식재하는 등 밀원수 지역특화림 30ha를 조성한다. 아울러 산림 부산물을 전량 수집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435

## 최초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다

충남이 품은 섬 이야기

### ⑤보령 고대도

#### 개신교 선교사 귀츨라프 자취

#### 풍어제 전통 간직한 각시당 등

#### 볼거리·풍광 자랑하는 청정섬

고대도(古代島)라는 작은 섬은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청룡초등학교 고대분교를 지나 바로 보이는 특이한 건물, 섬 전체에서 가장 멋진 이 건물이 바로 고대도 교회다. 이곳은 조선에 배를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인 칼 귀츨라프 선교사를 기념하는 기념교회라고 한다.

귀츨라프는 조선에 문호를 개방하고 통상을 요구한 최초의 이양선, ‘로드 암허스트호’가 고대도에 정박했을 때, 이곳에 왔다. 그는 고대도 도착(1832년 7월 25일) 이후 홍주 목사 이민회를 만나 외국인으로는 맨 처음으로 조선 왕에게 정식으로 통상을 청원했다.

조정의 회신을 기다리면서 고대도에 정박한 20일 동안 귀츨라프 선교사는 주민들에게 한문 성경과 약품을 나눠주었다. 또한 먹거리가 변변치 못하여 가난한 고대도 주민들을 위해 감자를 심고 재배하는 법을 알려주고, 감자씨앗 다음에 포도주와 포도즙 제작법도 전파했다. 귀츨라프는 당시 조선이 한자 문화권인데 조선 문자인 한글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글을 배워서 최초로 서양에 한글을 소개하여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삼시도 북쪽 4.5km에 위치하여 있으며 대전 향과 오천향에서 각각 18km, 태안반도 남쪽의 안면도 영목항과 약 6.5km 떨어진 청

정해역 어촌마을 고대도. 고대도는 예로부터 마을이 형성된 섬으로 집터가 많아서 고대도 또는 ‘고담’이라고 한다.

고대도 주위는 전복·해삼양식장 제66호로 지정되어 있다. 섬의 서쪽 해안에는 전복과 해삼양식장이 마을이 있는 앞바다는 바지락 양식장이 들어서 있다.

해안도로에서 나와 산으로 가는 길을 오르면 ‘실상묘변연화중’이라는 현판과 함께 도리사라는 개인사찰이 보인다. 그 맞은편에 당산이 있다. 당산표지판 뒤로 황토 흙으로 된 기와를 얹은 담장을 두른 공간 제단에는 ‘각시당’이라는 검은 대리석으로 된 표시판이 세워져 있다.

고대도는 농토가 터무니없이 부족해 주민들은 바다를 상대로 어업에 많이 종사했다. 잦은 사고로 인해 당산에서 안녕과 풍어를 위해 매년 정월 초에 소를 잡아 제를 올렸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이주해 버리고 배운 사람들이 미신으로 인식해 당산제는 잠시 중단했다가, 여러 사고가 일어나자 마을의 단합을 위해 1992년부터 다시 당제 지냈다. 하지만 1999년 봄에 당집에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후, 보령시의 지원으로 다시 제단을 복원하고 담장을 세워 예전 모습을 갖추었다.

고대도 조용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고대도는 안면도 남쪽 6.5km 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대전항에서 하루 3회 운항하는 신한훼리호를 타면 여러 섬을 경유하여 50분 만에 닿는다. 접근성이 좋아서 하루에 방문하여 섬을 돌아 볼 수 있다. 귀츨라프 선교사 기념교회와 함께 고대도에서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다.

/이재연 목포과학대 섬해양연구원



고대도 마을전경

##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돕는다

###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선포

충남도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도는 지난 2일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권익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방세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했다.

도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 9명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세무대리인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보유재산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불복 업무를 지원한다.

세무서비스는 지방세 과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한해 가능하다.

접수받은 기관은 자격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7일 이내 선정 결과를 통지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지정해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정과 041-635-3637





# 수출입 중심 서해안 거점 항만 육성

### 상업항 기능 강화·교통망 개선 등 대산항 거점 항만 조성 방향 제시

충남도가 서해안 중부권의 거점 항만 기능을 수행할 서산 대산항의 특화 발전 전략과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다.

항만 시설과 배후 단지, 교통망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해외 수출입을 담당하는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도는 지난달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산항 거점 항만 조성 특화 발전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항만 시설 ▲배후 단지 ▲교통망 ▲마리나 ▲크루즈 ▲물동량 창출 방안 등 부문별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항만 시설은 항만 개발을 통한 해양·물류 중심의 첨단 복합 항만 개발을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대산항 인근 석유·화학업체의 물동



대산항 전경

량을 유치해 기존 부두 기능을 활성화하고, 충청권 물동량 유치 확대를 통해 부두 시설 확충 등 상업항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철도를 확충해 대산항과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도 개선한다. 마리나는 단기적으로 대산항 인근 삼길포항 마리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연환경·수심·접근성 등 우수한

여건을 활용해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를 유도한다.

아울러 물동량 창출 방안으로 ▲대산항 석유·화학업체의 물동량 유치 확대 ▲선사 유치를 통한 항로 확대 ▲인센티브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 ▲기업 마케팅을 통한 충청권 화물 유치 확대 등을 추진기로 했다.

●균형발전담당관 041-635-3203

# 도립대 '신입생 100% 충원'

### 학령감소 중에도 6년째 '순항' 올해 정원 내 456명 등록 마쳐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가 학령인구가 본격적으로 급감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올해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하며 충남을 대표하는 공립대로서 명성을 높였다.

도립대는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정원 내 모집인원 456명 전원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입생 전원이 등록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6년 연속 등록률 100%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대학 등록 현황에 따르면 도립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모집 정원 543명 전원이 등록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모집정원 531명 모두 등록했다. 3년제 개편이 있었던 지난해

에도 456명 모집에 전원 등록이라는 기록을 올렸다. 전국 도립대 가운데 6년 연속 등록률 100% 기록한 것은 충남도립대가 유일하다.

특히 학령인구가 5만여 명이 넘게 감소하는 올해에도 이 같은 성과를 기록한 배경에는 그동안 도립대가 교육복지 실현하고 꾸준히 경쟁력을 높여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립대는 충청남도가 설립&#8231; 운영하는 대학으로 전국 대학 평균 등록금 대비 40% 수준의 등록금을 유지하고 장학금은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또 지난해 3년제 학과 개편과 대학 중단기발전 전략 추진, 대학혁신사업 선정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왔으며, 개교 이래 공무원 844명 배출 및 대기업 단체 입사 등 다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행보를 보였다.

●충남도립대 041-635-6699

# 도, 공공서비스 연계 사업 선정

### 당진·서천·예산, 행안부 공모선정 주민 참여 행정으로 현안 해결

충남도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 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공모에 도내 3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총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은 주민의 욕구와 지역 특성에 따라 복지·보건·주거·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주민 관점에서 연계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한다.

도는 이번 공모 사업에 앞서 설명회를 열고 시·군과 지속 협의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을 발굴, 이번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시·군은 당진시, 서천군, 예산군이다.

당진시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지

역 갈등을 주민의 자치력으로 회피하고자 주민 총회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의 공공서비스 실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당진형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제안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도내 대표적 노령화 지역인 서천군은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 챙김-동네 한바퀴' 사업을 신청했다.

예산군은 군내 고령화율 1위인 광시면을 대상으로, 마을 자킴이를 양성해 지역 복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우마소(우리 스스로 마을을 소통 케어하는 광시)'를 공모했다.

각 시·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부서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과 공공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주도적 행정 참여 유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행정과 041-635-3605



### '농업용 드론'으로 방제·예찰 강화

충남도가 4차산업 혁명 관련 기술의 필요로 꼽히는 '드론(멀리콥터)'을 농업 현장에 적극 투입한다. 도는 올해 농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농업용 무인항공기 드론 100대(20억 원)를 신규 보급, 병충해 방제 및 비료 살포 등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인 주소지 시·군 농정부서 농기계 담당자에게 사업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식량원예과 041-635-4046

# 16개 전담 구급대 배치... '코로나19 총력'

### 최전방서 의심환자 156명 이송 6월 중 음압구급차 2대 배치 구급차량 4대·인력 대구 지원도

충남소방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을 위해 16개 구급대 144명의 대원을 전담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119 상황실에도 전담 상담요원 9명을 배치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일 현재 코로나19 관련 구급이송은 총 176건으로, 의심환자 142명, 확진환자 14명, 검체 이송 20건 등이다. 신고 건수는 총 287건이다.

소방본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방지 장비 6종 1만 468점을 구입해 105개 119구급대에 지급했고, 코로나19에 노출된 구급대원을

위해 격리 장소 15개소를 마련했다.

소방대원의 감염 확산 원천 차단을 위해서도 신입교육생 및 의무소방원의 휴가, 외출·외박을 전면통제하고 있으며, 1일 1회 청사 소독과 1일 2회 발열 체크를 병행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향후 감염환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음압구급차 2대를 구입해 올해 6월에 배치 예정이다.

손정호 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 감염환자와 일반응급환자를 철저히 분리 이송하고 있으므로 도민들께서는 119 구급차를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19광역기동단 041-635-5734



대구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현장으로 지원을 떠나는 충남 구급대

#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 445억 지급

### 28일까지 농가 신청계좌로 지급

충남도는 12만 1332ha의 농지를 대상으로 2019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했다.

변동직불금은 80kg당 목표가격 21만 4000원보다 수확기 쌀값(2019년 10월

~2020년 1월)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80kg 기준 5480원으로, 벼를 재배한 농가는 ha당 36만 7160원씩 지급받는다.

도내 쌀변동직불금 총 지급액은 445

억 5000만 원으로, 2018년산 212억 원보다 233억 5000만 원 증가했다. 이는 2019년산 수확기 쌀값(18만 9994원)이 2018년산 쌀값(19만 3448원)보다 345원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량원예과 041-635-2525

**틈새 없는 청결**  
**틈새 없는 청렴**

틈새 없는 청렴 실천,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9년 충청남도 부패방지 사책평가 1등급  
청렴도 2등급(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 사회 조성! 도민과 공직자가 함께해요!  
[민간기업과 함께 하는 청렴사회인권협의회 지속 추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충남 청렴 캠페인 연중 추진]

청렴한 도정 구현! 공직자강을 더 엄정하게!  
[금공수수·생비위·음주운전-3대 개인비위 처벌 강화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공직비리 익명 신고방 운영 활성화]

공정한 도정 구현! 불합리한 관행 OUT!  
[보조금 부정수급 원천차단을 위한 내실 있는 보조금감사  
새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ZERO화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과 041.635.5431



#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중심 4차산업 '속도'

전국 최초 상업용 AI데이터센터 유치

첨단산업단지 부지에 2700억 투입

VR·AR 제작거점센터 공모 최종 선정

39억 투입, 실감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충남도가 4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0 지역가상현실(VR)·증강현실(AR)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전국 최초로 내포신도시 내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유치, 미션크리틱엔지니어링 김호영 대표, 엠세스 손태영 대표, 이호스트아이씨티 김철민 대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충남 실감콘텐츠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R&D) 클러스터 구축은 도의 미래전략사업 1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콘텐츠 분야 지원 기관 집적화 기반 조성, 콘텐츠 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충남형 실감콘텐츠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 사업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기술을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하고, 실감콘텐츠 산업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5G 기반 제작 인프라 구

축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올해는 센터 조성비용으로 국비 19억 5000만 원, 도비 10억 원, 아산시비 10억 원 등 총 사업비 39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센터는 KTX 천안아산역 인근 콘텐츠기업육성센터 내 991㎡ 규모로 조성하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 제작을 위한 테스트 베드 랩을 비롯해 오픈 스튜디오, 교육실 등을 설치한다.

센터에서는 생산 현장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5세대 통신 실감콘텐츠 융합 플랫폼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KTX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충남형 실감콘텐츠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오는 2024년까지 556억 원을 투자해 정보통신기술(ICT)·콘텐츠 기업의 기술융합단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신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협력부지 1만 4130㎡에 들어설 상업용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2700



실감콘텐츠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R&D) 클러스터 입지



오픈스튜디오



장비보관 및 서버실

억 원을 투입한다. 지상 5층, 지하 1층(연면적 1만㎡)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올해 9월 첫 삽을 뜬 뒤,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향후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storage)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365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와 투자기업은 이날 협약을 통해 향후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하

기로 했다. 특히 AI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범죄예방, 스마트 팜,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위한 중앙부처 AI관련 국비지원 공모사업 발굴 등 정책추진에도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며 "AI는 인지, 학습, 추론기능 등을 통해 산

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이 가상현실·증강현실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정보기술·빅데이터 서비스산업의 클러스터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입지과 041-635-2235

## “코로나 극복 온힘”...반값 임대료 확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최초 임대료인하

코로나19 확산이 경기침체를 가중시키는 가운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입주기업 임대료를 할인하고 나섰다. 충남의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사제로 코로나19 대처와 극복을 위한 민간의 착한임대료 운동 촉진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맹창호, 이하 진흥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기업을 돕기 위해 콘텐츠기업육성센터와 글로벌게임센터의 임대료를 낮춘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는 1차 2개월간 매월 50%씩 할인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상황을 살펴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진흥원에는 KTX천안아산역 인근 콘텐츠기업육성센터와 글로벌게임센터에 각각 18개와 8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운영 중이다. 이들 입주 기업들의 임대료는 임대면적에 따라 12만~56만 원으로 전체 월간 654만 8870원이다.

진흥원은 이들 중소기업에 이달과 다음 달에 각각 50%씩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동향을 살펴 할인가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이해 진흥원은 입주기업 운영지침을 일부 개편해 국가적 재난과 질병 및 감염 병에 따른 사회경제

적 요구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진흥원은 이번 임대료 인하조치는 우리사회에서 추진되는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을 위한 착한임대료운동이 지역에서도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충남의 일부 공공기관들도 진흥원처럼 임대료 인하를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맹창호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질적 도움을 위해 임대료인하를 결정했다”며 “취약계층 우선지원 방안도 나왔지만, 경제기관의 역할 등을 고려해 착한임대료운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확산을 돕겠다”고 밝혔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620-6452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지침 완화

인력·사회보험료 지원 선지급 등  
코로나19 대응 정책 강력 추진

충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 실시했다.

도는 우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지침을 완화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에 대한 월 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재심사 제의를 면제하고, 사업개발비 전문심사위원회의를 대면에서 서면으로 변경·개최하도록 예외 적용했다.

고준근 도 공동체지원국장은 “사회적 경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를 적극 홍보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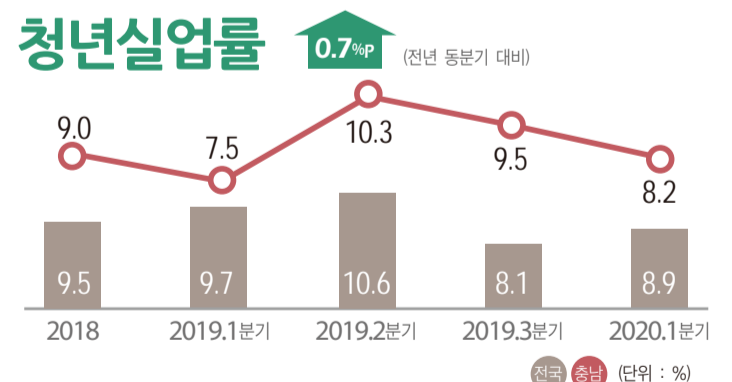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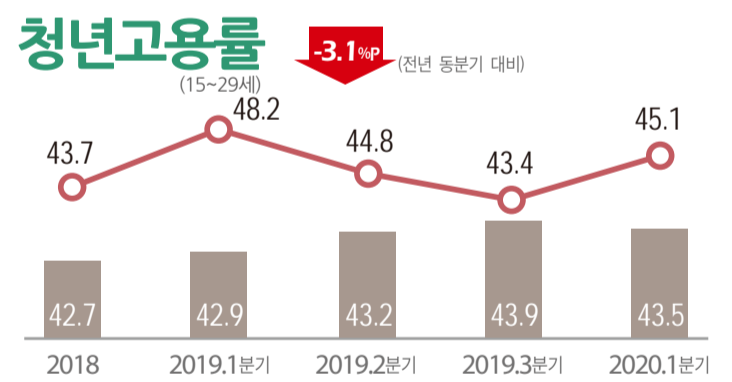


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장실사 및 마을기업 전수조사 등 사업추진 일정을 잠정 연기 조치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과 041-635-3942

### 충청남도 1월 일자리 상황판



### 수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최대 200만원, 소진 시 종료

충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2020년도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한 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보증)종목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지원 한도는 2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분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연간 총 수출실적 2000만 달러 미만(보증 이용 시, 1000만 달러 미만) 기업이다.

도는 올해 지원예산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종료될 수 있으며, 충남 수출지원온라인시스템(https://cntrade.kr) 및 충남도청,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제통상과 041-635-3362





# 재생에너지 '40%까지 늘린다' ...에너지계획 수립

##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발표

‘에너지전환 2040’ 목표 제시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40%까지  
연료·태양광·풍력발전 비중 늘리고  
석탄화력 발전량 최대 20%까지 ↓

충남도가 2040년까지 전기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완성했다. 반면 현재 74%를 차지하는 석탄화력 비중은 20%까지 낮추는 등 전향적이면서 도전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 25일 현재 석탄화력 중심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확정했다. 도가 지난해 4월 에너지위원회를 꾸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 이후 시·군별 에너지 담당부서 및 발전사 등을 방문 면담과(19년 7월) 도민참여 토론회(19년 9월) 등을 거쳐 지역에너지계획 도민기획단을 구성·운영하며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크게 ‘탈석탄에 대한 능동적 대응’, ‘도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분권정책’,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의 3대 기본방향에 주안점을 뒀다.

먼저 탈석탄 대응을 위해서는 도 에너지정책의 핵심기조인 ‘노후석탄화력 단계적 폐쇄’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 석탄화력 발전 수명 25년 기준, 도전적 석탄화력 감축 시나리오 제시, 수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모색한다.

또 도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분권정책을 위해 지역에너지 도민기획단을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전담조직으로 충남 에너지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해 수요 관리 시장 활성화 등 대응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및 개선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다각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1차 에너지공급원 ‘석탄’이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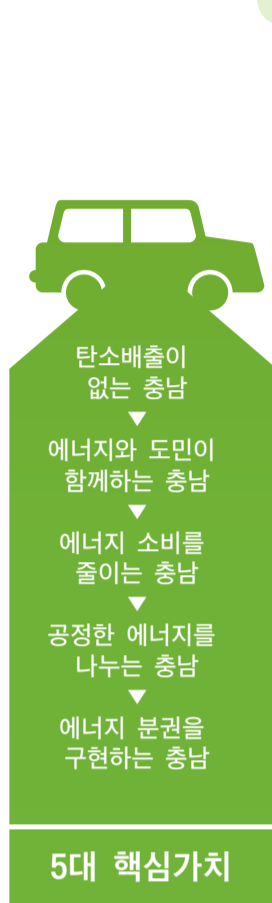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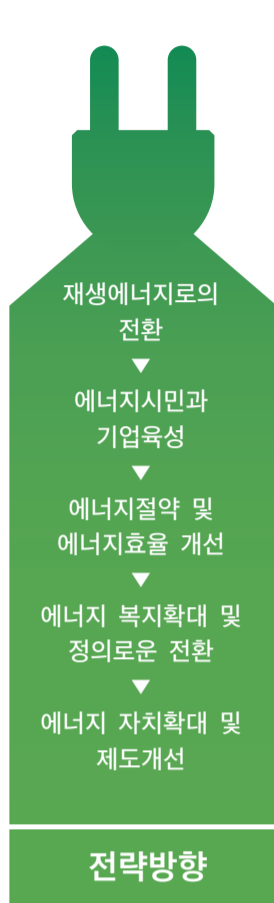
1인 최종에너지소비량 전국 3위

탄소 배출·에너지 소비 줄이고

공정한 에너지 분권 구현 목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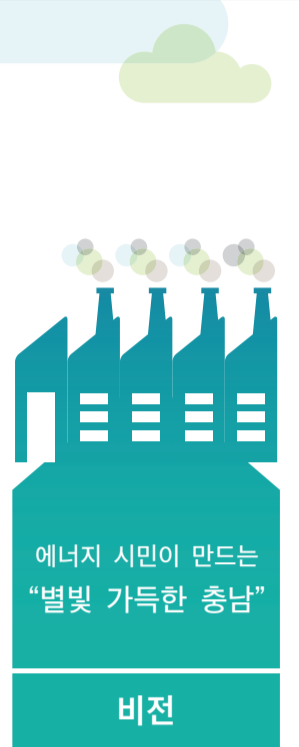
2017년 기준 충남의 1차 에너지공급량은 5974

## 지역에너지계획 비전 및 핵심전략



2040년까지의 석탄화력 비중 20%, 재생에너지 비중 40%

구분	2018	2025	2030	2040	
주요 신재생 보급	태양광(MW)	950	2,635	4,499	8,961
	풍력(MW)	2	168	538	738
	연료전지(MW)	11	441	831	1,700
	바이오(MW)	142	252	282	382



만 8000TOE로, 전국 대비 20% 수준이다. 이 중 1차 에너지공급원은 ‘석탄’의 비중이 가장 높아 석탄화력에 의존하고 있는 도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에너지기업이 다수 입지한 탓에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전국 3위에 달한다. 물론 도의 전력자립도는 전국 1위로 우뚝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위 수준에 머물러 탈석탄·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별빛 가득한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2018년 기준 15.6%) 이상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MW에 불과했던 연료전지를 2040년까지 1700MW로 늘리고, 태양광 역시 950MW에서 8961MW로 확대한다.

또한 풍력 발전과 바이오 에너지 역시 각각 2MW에서 738MW, 142MW에서 382MW로 비중을 높인다.

반면 도내 발전량의 약 3/4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전국 60기 중 충남 30기) 발전량 비중을 최대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배출이 없는 충남 ▲에너지와 도민이 함께하는 충남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충남 ▲공정한 에너지를 나누는 충남 ▲에너지 분권을 구현하는 충남 등을 5대 핵심가치로 정했다.

연내 충남 에너지센터 개소 추진

모니터링·피드백 등 중간조직 역할

석탄화력 폐쇄 역기능 최소화하고

주민주도형 대안발전 모델 마련

세부적으로는 11개 전략과제와 39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추진 ▲RE100\* 산업단지 조성 ▲주민참여 에너지리빙랩 발굴 지원 ▲주민참여형 지역 특화사업 추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지원 및 확대 ▲시·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시·군 에너지센터 설립 등이다.

도는 향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통해 마련된 실행과제를 올해 개소하는 ‘충남 에너지센

터’와 협력·추진하고,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발전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2차년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은 석탄화력 폐쇄 후 지역 경제·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주도형 대안발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추진 사례 검토 ▲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지역경제 영향 시나리오 분석 ▲대안발전모델 마련을 위한 도민참여 연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책 및 일자리 창출 제도화 방안을 위한 정부 제안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 계획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도민 스스로 에너지전환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에너지 절약 등을 적극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과 041-635-3457·3456

/손유진 syj0319@korea.kr

##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별빛 가득한 충남’을 위해

2020년 충남연구원

현장이야기

⑤에너지전환연구회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사업 꿈꿔

도민 참여 에너지 전환 비전 설정

충남연구원 에너지전환연구회는 2014년에 설립됐다. 당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연구 수요도 없고 담당 부서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창립회원들은 앞으로 ‘에너지 문제’가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공유했다.

에너지전환연구회는 우선 마을과 읍·면·동에서 에너지 자립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다. 재생에너지를 주택 지붕이나 마을 공공시설이나 부지에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거나 전력 판매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는 점에 주목했다.

마을 주민이나 시민들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2014년 10월에는 유럽 에너지협동조합 연맹(Rescoop.eu)의 담당자에게 유럽의 에너지 협동조합 현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라북도, 강원도에서까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다.

2015년에도 햇빛발전협동조합 사례와 시사점, 국내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RPS 제도개선 방안, 서울시 지역에너지 전환 사업의 시사점에 대한 연속 세미나를 구성했다.

연구회는 2016년을 거치면서 충남연구원 내 연구모임에서 벗어나 충남 지역 내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해 당사자를 연결하기 시작했다. 충남 내 환경단체, 적정기술협동조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농민,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참여하여 에너지 현안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충남에너지전환집담회’를 구성한 것이다.

경기도 에너지센터와 전라남도 녹색에너지 연구원의 담당자를 초청하여 충남 내에서 도민들과 함께 에너지 정책을 실행할 중간지원 조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에너지전환집담회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 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충남도의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에너지전환집담회 회원들이 도민참여워크숍 추진단 및 실무단으로 참여하여 도민참여워크숍을 함께 준비하고, 실제 워크숍에서도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맡았다.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별빛 가득한 충남’이라는 비전은 에너지전환연구회가 2014년부터 제기해 오고 확산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충남에너지전환집담회는 충남 에너지전환네트워크로 개편되었다. 충남에

너지전환네트워크는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충남에너지전환포럼’을 발족하여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현안, 충남에너지센터 설립 방안, 시민참여형 충남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고 지원하였다. 더 나아가 전국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교류하면서 충남 지역 내 에너지 전환 이슈뿐만 아니라 전국 차원의 에너지 전환 이슈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충남연구원 에너지전환연구회는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함께 충남에너지전환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에너지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에너지전환연구회가 시작한 2014년에는 담당 부서도 담당 연구원도 없었지만 2019년에는 충청남도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여럿이며 시·군에도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원조직으로서 에너지센터도 충남도와 당진시에 설립되어 있다. 처음 시작과 마찬가지로 광풍처럼 휘몰아치는 변화의 시기를 차분히 준비하는 연구회 활동을 기대해 주길 바란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손정자 씨, 제19회 유관순상 수상자로

효행·칭찬운동 등 인성교육 관심  
40년간 전인교육 현장서 활동  
조선족 학교 자매결연 체결 등  
중국 동포 학생 애국심 고취도



국 동포 학생들에게 독립에 대한 애국심을 고양시킨 점도 주요 공로로 인정됐다. 이밖에도 손 원장은 교육적 성과와 철학을 바탕으로 퇴임 이후에도 효행·칭찬 운동과 같은 인성 교육에 관심을 갖고, 사회단체장 및 시민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유관순상위원회는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되새기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관순햇불상 수상자로 김민진(서울 한영외고) 학생 등 총 21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유관순햇불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햇불모임을 통해 유관순 열사를 알리기 위한 사회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관순햇불상은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건전한 학생 문화 활동 등을 공적 심사하며 유관순상위원회 주관 워크숍에서의 연구 발표 및 활동을 평가해 선정했다.

한편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 19'가 통제될 때까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

## 유관순햇불상 수상자 명단

연번	이름	학교
1	김민진	서울 한영외고
2	이정현	충남 신평고
3	엄수빈	경기 김포외고
4	남정은	충남 공주영명고
5	이예희	충남 공주사대부고
6	문소은	경기 청심국제고
7	이현정	충남 홍성외고
8	조은결	전북 부안외고
9	남연주	강원 민족사관고
10	양한빈	경기 부천북고
11	임서운	대전 둔산외고
12	박서영	경북 울진고
13	이재은	서울 이화외고
14	송유진	경남 거제옥포고
15	윤은하	경기 테크노과학고
16	박슬비	경북 성의외고
17	정혜림	충남 호서고
18	고윤서	경기 한국디지털미디어고
19	정서연	대전 도안고
20	오승아	전남 여수정보과학고
21	장선경	경기 양곡고

되었다. 유관순상 수상자에게는 20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유관순햇불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3

# 관촌에 핀 문학정신

## 충남의 근현대 문인들

### ④보령 이문구

#### 자전적 연작소설 <관촌수필> 관촌마을에서 탄생한 대표작 충청 토속어의 해학 '백미'

보령에서 북쪽으로 2km 남짓한 거리에 관촌마을이 있다. 보령의 현대문학뿐 아니라 한국문학 혹은 아픈 역사의 무대가 되는 곳, 연작소설 <관촌수필>의 바탕이 되는 곳, 대한민국 대표 소설가 이문구의 고향이다.

1941년 이곳에서 태어난 이문구는 1963년 서라벌예대 문장과를 졸업하고, 1966년 <현대문학>지 추천으로 등단했다. 당시 소설가 김동리 추천사에서 "한국 문단은 가장 이채로운 스타 일리스트를 얻게 됐다"라고 말했다.

1968년 <이 풍진 세상을>에서부터 <장한몽>, <관촌수필>, <우리동네>, <매월당 김시습>, <유자소전>,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등 많은 작품집을 남겼으며, 만해문학상, 요산문학상, 동인문학상, 대한민국의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1993년 <관촌수필>이 SBS TV에 30부작으로 방영되면서 이곳을 문학의 명소로 만들었다.

그는 월간문학 편집장, 한국문학 편집장 등의 일을 하면서 현실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세상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고발하는 작품을 썼다. 한국전쟁의 비극으로 집안이 몰락해 고향을 떠났던 주인공이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옛날을 회상하는 <관촌수필>은 고향체험에서 길어 올린 자전적 연작소설이다.



농촌의 원형과 산업화에 따른 해체과정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면서 농촌소설의 전범을 보여주는 작가로 평가되는 그를 두고, 시인 김지하는 "우리말의 가락을 아름답게 살린 유장한 문체와 자유스럽게 구사된 충청도 토속어의 해학은 그의 상징이다"라고 평했다.

그는 위암 진단을 받고 쓴 동시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뒤 10일 후에 세상을 떠났다. 2003년 62세가 되는 해이다. 마을 뒷산 소나무 숲에 뿌려달라는 유언과 자신의 이름을 단 문학상이나 문학비를 만들지 말라는 유언 때문인지 보령지역 그 어디에도 문학비가 없다. 단지 그의 생전인 1995년에 보령 문학인들이 '관촌마을' 표석을 건립, 문학비를 대신하면서 이곳이 <관촌수필>의 무대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즈음 관촌마을은 옛 모습을 거의 잃어버렸다. 마을 뒤편 부영재가 소나무 사이로 보이고, 그 아래 솔수평이 아직 흔적을 붙들고 있지만 마을 앞 드넓은 갯벌은 간사지 논으로 바뀌었고, 마을 처녀들이 그네를 뛰던 팽나무는 고층아파트에 밀려 사라지고 말았다. 다만 그가 남긴 <관촌수필>이 우리네 마음자리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한국적 유토피아에 대한 향수를 자극할 뿐이다.



이정우  
충남문인협회 회장

# 악취방지 관리·지원 조례 세부사항 마련

## 18일까지 도민·단체 의견 수렴

충남도는 오는 18일까지 '충청남도 악취 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도민 및 단체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충청남도 악취 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지원 계획 수립 ▲기술 진단 지원 대상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다. 도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악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회를 운영해 악취 민원 사업장 및 시·군 경

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기간 내 도 환경안전관리과로 서면, 전화,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 환경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5월 중 최종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환경안전관리과 041-635-4445

# '찾아가는 문화활동' 98건 선정 연극·무용·전통 예술 등 공연지원

충남도는 '2020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사업을 통해 총 98건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도는 지난 1월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예술 ▲다원 예술 ▲연예

활동 등 6개 분야에 대해 공모 신청을 받았으며 분야별 전문가·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서면 및 인터뷰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공모 신청한 180건 가운데 98건을 최종 선정했으며 작품당 500~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총사업비 6억 원(도비 3억 원, 시·군비 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분야별 선정 작품은 ▲연극 10건 ▲무용 7건 ▲음악 22건 ▲전통 예술 21건 ▲다원 예술 24건 ▲연예 활동 14건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시·군과 공연 장소 및 일정을 확정해 시·군 누리집에 안내하고, 다음 달부터 문화 활동 공연 사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문화정책과 041-635-3818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특목' 문화재단 6년째 주관기관 선정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맹봉재, 이하 재단)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 지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6천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재단은 '문화다양성 기반구축

형, 문화다양성 가치 발굴 및 확산형, 지역특화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프로그램으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정신장애 극복 캠페인 ▲문화다양성 공공영화상영회 ▲문화다양성 공공영화제 ▲문화다양성 도서 캠페인 ▲청양 청년 기획단 등 지역 내 단체들과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문화재단 041-630-2913

# 노리카를 끌고 아이들을 찾아 놀이하는 어른의 '꿈'

## 세상놀이 한마당 '따로 또 같이'

### ③노리카(noricar)

#### #노리카, 이게 뭐냐고?

일단은, 놀이와 카(car)의 합성어야. 놀이에 유용한 도구들을 가득 실은 차를 끌고, 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팝(pop)하고 나타나 놀다가 업(up)하고 사라지려고.

이단은, 노리카(noricar)의 노리(nori)는 루마니아어로 '구름떼' '희망'이라는 뜻이래. 그리고 카(car)는 '마차'라는 뜻이고, 희망을 싣고 찾아가는 마차 정도랄까.

삼단은, 놀이? 카~! 놀이하면 감탄사가 절로 날 정도로 좋잖아.

#### #이런 생각을 왜 했냐고?

나는 놀이하는 어른이야. 다른 어

른들이 나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좀 놀아 달래. 그런데 같이 놀고 있으면 뭐라고 하는 어른들이 있어. 그냥 놀지만 말고 뭔가를 가르쳐 주래. 그래서 나 공부도 많이 했어. 다른 어른들한테 놀이를 배우기도 했어. 덕분에 지금의 나는 아는 놀이가 많아. 아이들은 내가 가면 좋아해. 그런데 내가 한시라도 멈추면 아이들도 놀기를 멈춰. 내가 없어도 녀석들끼리 놀 수 있는 끼리들을 만들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것들을 싣고 다닐 차를 구하면서 뭔가 그럴듯한 이름이 없을까 하다 궁리한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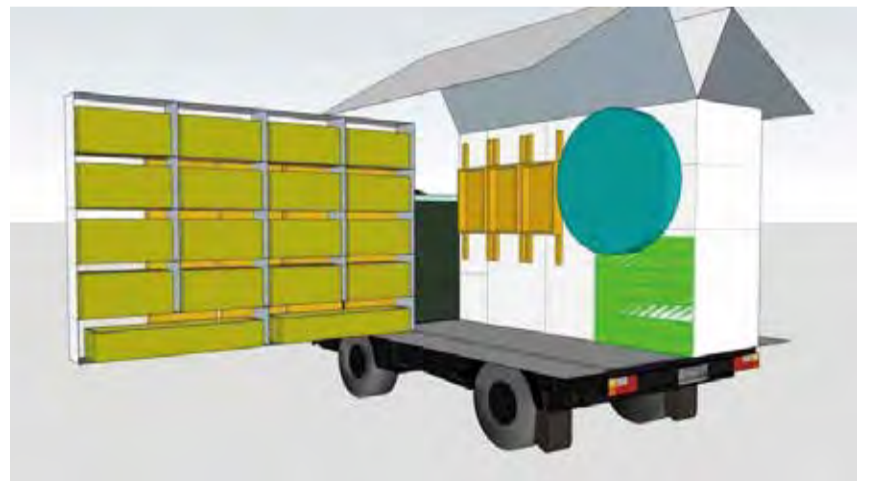
####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냈다고?

아니, 사실은 독일에는 그런 어른들이 많대. 나도 가보지는 못하고 언

어 들은 이야기인데. 독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스피 바겐(Spielwagen)이라는 것을 운영해 왔다네. 스피 바겐(Spiel)은 '놀이'라는 뜻이고, 바겐(wagen)은 '버스'라는 뜻이래. 어떤 개구진 어른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것저것 놀이도구들을 만들어 버스에 싣고서는 놀이가 고풍 아이들을 위해 여기 저기 찾아가서 놀아 주었다네. 그런 사람들이 늘면서 지금은 독일에는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NGO 단체 등이 300여 개가 넘게 있다네. 사실 나도 가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고들 있다고 하네.

#### #노리카,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생각만 한 지는 5년도 넘었어. 그런데 이걸 너무 해 보고 싶은 거야.



노리카 설계도

몇 년 전부터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그것들을 차에 싣고 다녔지.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저기도 다녀봤어. 그런데 이번에 큰맘 먹고 차 한 대 뽑았지. 버스까지는 아니고 트럭이야. 지금은 그 트럭 구석구석을 조물락거리고 있지. 코로나가 물러가고 봄 햇살이 드리우면 여기저기 다닐 거야.

#### #노리카, 그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

글쎄, 올해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랑 충남 내 초등학교 몇 곳을 돌아보려고 했어. 그리고 우리 지역(예산군) 학교에 놀러갈 때도 끌고 다녀 보려고.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할 사람들과 함께할 거리들을 구체화해 보려고. 커밍 슌(Coming Soon)이야. /강동완 세상놀이연구소장





# 무량사 오층석탑 금동불상 '보물됐다'

여말선초 제작 추정 불상 4구  
국가지정문화재 반열 올라  
성보박물관 건립 해 지역사회로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탑신에서 출토된 금동불상 4구

충남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에서 나온 금동보살좌상 등 금동불상 4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됐다.

도는 지난달 27일자로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60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은 1971년 8월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해체·수리 과정 중 발견됐으며, 고려 초기 금동보살좌상 1구와 조선 초기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3구 등 총 4구이다.

금동불상 일괄은 고려 전기와 조선 초기에 제작된 불상들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85호인 무량사 오층석탑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주요 근거 자료여서 가치가 매우 크다.

2층 탑신에서 나온 금동보살좌상은

발견지가 분명해 그동안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구가 미진했던 고려 전·중기 불교 조각사 규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다.

1층 탑신에서 발견된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아미타상과 좌협시(左脅侍) 관음보살상, 우협시(右脅侍) 지장보살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려 말 조선 초 유행한 관음과 지장으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 도상의 중요 사례로 꼽힌다. 또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지금까지 발견된 탑 봉안 아미타여래삼존상 중 구성이 가장 완전하고, 규모가 크며 상태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은 지난 2017년부터 도와 부여군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며 "불상의 조성 배경을 알 수 있는 기록과 명문은 없으나 분명한 발원지와 양호한 보존 상태, 우수한 조각 기법 등을 통해 당시 불교문화의 일면을 밝힐 수 있는 역사·학술·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에 있는 이번 지정문화재를 지역사회에 전시코자 부여군·무량사와 협력해 성보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유산과 041-635-2452

##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에 김현식 씨 취임

지난 1일 충남문화재단 제4대 대표이사로 김현식 전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대외협력관이 취임했다.



미디어방송협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충청사회문화연구소장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1년 7월 6일까지로 연임이 가능하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다.

이번 심사에서 김 대표이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 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또 문화 분야 유관기관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조직관리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이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대외협력관, 한국뉴

도 관계자는 "새로운 대표이사 임용을 계기로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에게 차별 없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문화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도와 재단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정책과 041-635-3816

## 수중정화·환경보전 캠페인사업 공모

도내 호수·강 환경 개선 추진

충남도는 오는 9일까지 호수·강 주변 수중 정화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최근 수중 쓰레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강수계 및 강 하구를 중심으로 정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업 내용은 도내 호수·강 주변 및 수중 쓰레기 수거와 환경 보전 캠페인 등이며 사업비 16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설치·운영 중인 법인 및 단체 ▲도내 주소를 둔 개인 ▲도내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

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신청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담당부서 사업 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4월 중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수거가 어려워 수중에 방치되거나 산재해 있던 쓰레기와 위험물을 제거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환기할 것"이라며 공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환경안전관리과 041-635-4451

## '농산물 가공'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맞춤형 패키지·전통식품 소포장 등 지역 농산물 가공 창업 추진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및 소규모 창업 등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 농식품 가공분야 시범사업'은 총 22종으로 55억 원을 투입하며 ▲창업 교육 및 시제품 생산 지원을 위한 종합가공센터 운영 ▲작업 환경 및 안전성 향상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소규모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소비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한 수요에 맞춘 소비자 맞춤형 패키지 상품 개발과 다이어트 대용식, 영양 간식 등 맞춤형 소비층을 설정한 후 전통식품 소포장 등의 상품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주 등 1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창업 교육과 창업 코칭도 지속할 방침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가내 수공

업 형태인 농산물 가공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전문 사업장으로 조성하고, 농가 소득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농산물 가공 산업의 인재를 적극 육성해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전통장류·전통식품 인증 시범사업 13개소를 선정해 전통방식으로 생산한 된장, 고추장 등 발효 장류 총 120여 톤의 초·중·고 공급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농업기술원 041-635-6192

## 두레박은 품고 타래박은 뜨고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34)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줄을 매 물을 떠올리는 타래박

충청인은 두레박으로 논을 대고

타래박으로 새암물을 길은 것

'두레박'과 '타래박'은 어떻게 다를까? 수도 시설이 오늘날 같지 않았던 예전에는 새암을 이용했다. 집집마다 새암을 파고 물을 댔다. 그때 물을 걷는 도구가 두레박이었고 타래박이었다.

'두레박'은 '드레'에 '박'이 붙은 말이다. 600년 전 기록을 보면 '드레박'은 안 보이고 '드레'만 나온다. '드레'는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논이나 밭에 끌어 올리는 도구였다. 밑바닥은 좁고 위는 넓게 만든 나무통이다. 이 '드레'에 줄을 매달아 물을 끌어 올렸다. '드레'는 200년 전쯤 '두레'로 바뀌고, 여기에 '바가지'를 뜻하는 '박'이 붙어 '두레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두레박'은 '논에 물을 끌어 올리는 나무통'을 뜻하는 말에서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바가지'란 뜻이 더해졌다.

'타래박'은 '타래'에 '박'이 붙은 말이다. '타래'는 실이나 끈, 줄을 뭉쳐놓은 것이니, 타래박은 '긴 줄을 매어 물을 떠올리는 바가지'가 된다.

그렇지만 꼭 줄을 매단 것은 아니다. 내가 살던 차령산맥의 산골짜기는 5미터 10미터씩 파도 새암물이 잘 고이지 않았지만, 들판에서는 쉽게 물이 났다. 1-2미터만 파도 물이 고였다. 때문에 얇은 새암에는 굳이 긴 줄을 달지 않았다.

그래서 깊은 새암물을 뜨는 타래박에는 긴 줄이 달리고, 얇은 새암물을 뜨는 타래박에는 장대가 달려 있다.

서울지방에서는 새암물을 우물물이라 하고, 새암물을 걷는 타래박을 두레박이라고 한다. 어렸을 적 나는 '태라박'이라고 썼다. 친구들은 대개 '타래박'이라고 썼다. 뭐 '태라박'이나 '타래박'이나 비슷하다. 나는 똑같은 충청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타래박을 두레박이라 쓰는 아이들을 만났다.

당진의 친척집에 가니 사촌들이 새암물을 길어 올리며 두레박이라고 썼다. '아니 충청도 사람이 왜 서울말을 쓰냐?' 따졌다. 사촌들은 '두레박이 왜 서울말이냐?' 되받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내게 '두레박'은 새암물을 떠올리는 바가지가 아니다. 충청도의 '두레박'은 논에 물을 끌어 올릴 때 쓰는 바가지다. 개울물을 막거나 논가를 깊이 파 물 통병을 만들고, 그 물을 마른논에 끌어 올리는 도구다.

그러니까 예전 충청도 사람들은 두레박으로는 논에 물을 대고, 타래박으로는 새암물을 길은 것이다. 서울 두레박이 충청도를 점령한 지금 나는 찌그러진 할머니의 타래박이 그림다.

'타래박이 오딜 갔나 했더니, 이 녀석이 삼 속이다 빠져났구먼.'



이명재 시인·충청언어연구소

13일까지 민간기관·단체 신청 가능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원장 조이현)은 도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년 충남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운영 단체 및 기관을 오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공모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충남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부합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주시의 ▲역사 및 문화 ▲역량·자질함양 ▲

공유가치, 삶의 가치 등의 내용으로 강의, 토론회, 현장견학 등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모신청하면 된다.

사업지원 규모는 총 6000만원으로, 총 7~10개 사업을 선정하여 기관별로 500~80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ile.or.kr)의 공지사항 및 사업공모를 참조하면 된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041-635-1226

2020년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 민주시민교육 사업공고

-공고기간-

2020. 2. 26.(수) ~ 3. 13.(금)



# 세계 홀린 'K-마당극' ... "외국 고전으로 도전하고 파"

## 문화사-극단 예촌

국제연극제서 한국 최초 금상 쾌거  
고전 재해석한 현대판 마당극 호평

'극단 예촌'은 충남 예산군을 대표하는 연극단체다. 1993년 연극을 좋아하는 예산군민들 10여 명이 모여 '연극을 좋아하는 모임'으로 시작해 1996년 '극단 예촌'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창단했다. 현재는 이승원 충남연극협회장을 중심으로 30여명의 단원이 활동 중으로 청년 연극인들의 참여율이 높다. 흥성 소재 대학인 청운대학교 연극학과 재학생들이 극단 예촌에서 경력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극단의 중심점인 이승원 대표는 연극배우이자 텔레비전이다. 영화 '낮술' (노영석 감독), '화려한 휴가' (김지훈 감독) 등 영화를 비롯해 '제빵왕김탁구', '선덕여왕'과 같은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광해유감', '죽도록 달린다', '전태일', '논개'와 같은 정통연극에도 다수 출연하며 충남 연극계의 한 축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9년 전 대표를 맡으면서 이 대표는 극단 예촌에 마당극을 도입하며 제2



극단 예촌 관계자들이 연극 '역사의 제단' 공연 후 다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의 전성기를 마련했다. 마당극은 전통연희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한국적인 연극이다. 이 대표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마당극으로 극단 예촌의 공연 스타일에 변화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극단 예촌의 대표 마당극은 '퓨전 심청전'이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고전인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비보이, 현대무용, 고전무용, 하모니카 연주 등 현대적 다원 예술의 형태를 갖췄다. 현재까지 100여 차례 이상 무대에 오르며 대중들에게 '극단 예촌'을 알리는 효자 작

품으로 자리 잡았다. '퓨전 심청전'과 더불어 '춘향전', '흥부전'도 현대적인 각색을 거쳐 마당극으로 재탄생했다. 춘향전의 경우 이몽룡이 서자 역할로, 춘향은 천주교 신자로 등장하는 등 등장인물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과감한 변화와 정치·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극단 예촌의 다소 이색적인 마당극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2015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22회 국제연극 페스티벌에 참가해 한국 최초로 금상을 수상했다. 또 이

듬해인 2016년에는 프랑스 아비뇽 발롱극장에서 초청공연을 갖고 두 차례에 걸쳐 '퓨전 심청전'을 공연했다. 이밖에도 베트남, 일본 등 소도에서 해마다 초청공연을 선보이며 한국 마당극의 신명으로 아시아인들의 흥을 돋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각종 지역축제와 초청공연, 정기공연, 충남연극제 참여와 함께 매년 예산에서 열리는 예당국제공연예술제를 충남연극협회와 함께 개최하며 예산을 국제 연극도시로 알리고 있다.

이밖에도 예산문화예회관 상주단체로 7년간 선정돼 청소년과 성인, 장

래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극 교육, 놀이로 즐기는 연극의 이해 등 주민들이 연극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며 연극의 저변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극단 예촌은 최근 예산 출신 독립운동가인 윤봉길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창작극 '역사의 제단'으로 마당극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극을 선보이고 있다. 윤봉길의 상해 활동과 정치적 암투를 디테일하게 표현한 연극으로 섬세한 고증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이승원 대표는 "현재 한국 고전을 재해석해 현대적인 마당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셰익스피어 희곡과 같은 해외 고전도 한국적으로 각색해보고 싶다"며 "세계 명작을 한국적,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면 세계적으로도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연극은 어떤 공연 장르보다 관객과 가까워서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며 "연극을 매개로 지역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하는 만큼 도민들께서도 지역의 연극인과 지역 극단의 작품을 사랑하고 아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해동 khdl226@korea.kr

## 문화행사

### 백건우 콘서트

■일시 : 3월 19일  
■거장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손끝에서 재탄생하는 베토벤의 웅장한 선율을 느껴보자.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음악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끊임없이 연구하는 태도로 인하여 건반 위의 구도자라는 별명을 가졌다. 풍부한 레퍼토리 와 서정적인 피아니즘으로 많은 팬을 보유한 세계적인 연주자이며, 현재 프랑스를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문의 : 041-661-8031

### 뮤지컬 '레베카'

■일시 : 4월 10~12일  
■영국의 대표작가 대프니 듀 모리에

의 소설과 스티븐의 거장 알프레도 히치콕의 영화 '레베카'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이다. 로맨스부터 스릴 넘치는 서스펜스, 압도적인 음악과 화려한 무대를 만끽할 수 있다. 류정환, 엄기준, 카이, 신성록, 옥주현, 알리 등 새로운 캐스팅으로 무장한 레베카를 만나보자.  
■장소 : 천안예술의전당  
■문의 : 1588-0766

### 연극 '발칙한 로맨스'

■일시 : 4월 8일~11일  
■코미디 프로그램과 각종 예능프로에서 사랑받고 있는 '코미디왕' 배우 김민교가 직접 극을 쓰고 연출했으며, 출연까지 하며 대학로 최고의 이슈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문학시어터에서도 지난해 이맘때 공연돼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15년 전, 수지와 봉필은 순수한 첫 사랑을 하다 아픈 이별을 했다.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된 봉필이 첫 사랑 수지를 잊지 못하고, 급작스런 만남을 갖게 된다. 둘의 은밀한 만남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보며 유쾌한 상상을 함께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문의 : 041-661-8031

### <전시>고암 이응노의 사생과 소묘

■일시 : ~5월 31일  
■고암 이응노 화백이 1945년도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서울과 흥성 및 전국을 기행하며 사생한 인물, 풍속, 풍경, 정물, 영묘화조, 그리고 추상을 위한 습작에 이르기까지 고암의 예술정신과 예술세계를 확립하기 위해 즐기차게 노력한 사생과 소묘작품 120여점 및 고암의 사생첩을 전시한다. 전시를 위해 '이응노의집' 소장품 중 '사생'과 '소묘' 작품 100여점을 우선 보존 수복했고, 이를 처음 관

람객들에게 공개하는 소장품 전시다. 작품들은 연필소묘, 수묵채색, 콩테 등 그 시대의 다양한 미술대료를 사용했다. 서울 풍경과 흥성의 풍경, 피난시절의 풍경, 변화한 도심이나 고요한 사찰의 풍경, 소, 새, 꽃, 물고기 등 평소 고암의 그림에 관한 호기심을 엿볼 수 있다.  
■장소 : 흥성 이응노의집  
■문의 : 041-630-9232

### <전시>고양이민화전 '냥덕之房'

■일시 : ~6월 30일  
■한지를 염색하고 천천히 색을 중첩한다. 한지에서 오는 포근하고 따뜻한 이 마치 고양이와 닮았다. 과감한 구도와 색채, 촌스러운 듯 그리운 느낌, 소재에 하나하나에 행복을 바라는 소망을 담은 따뜻한 민중의 그림. 좋아하는 요소가 민화에 모두 담겨있다. <작가 노트 중>

■장소 : 논산 선사인스튜디오 내 문방구  
■문의 : 1811-7057

### 제59회 아산성웅이순신 축제

■일시 : 4월 24일~28일  
·매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4월 28일을 전후하여 충무공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국난극복의 위업을 계승하고자 열리는 충남 아산의 대표 축제이다.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체험 행사, 승전행렬 퍼레이드, 무과제연, 축하공연, 멀티미디어 불꽃쇼 등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 학술세미나,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우고 되새기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문화관광축제다.  
■장소 :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 및 시내 일원  
■문의 : 041-534-2634



명제 : 맹사성 고택

## 그림으로 떠나는 충남古宅스케치 은행나무 아래서 학문을 닦다

청백리 맹사성은 최영 장군의 손녀사위지만 그 재능이 아까워 태조 이성계가 정치에 기용, 고려 말부터 조선 초 여러 벼슬을 거쳐 세종 때 우의정에 올랐다. 효성이 지극하고 청렴결백하게 검소한 삶을 살았으며 출입할 때는 소타기를 좋아하고 음악에 조예가 깊어 스스로 악기를 만들어 즐겼고 품성이 어질고 부드러운데다 조정의 정사를 논의할 때는 과단성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청백리로 백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서민적 정성으로 유명하다.

아산시 배방면 중리에 위치한 고택은 I 자형의 대표적인 민가로 대청을 사이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온돌방을 둔 흠처마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고택 가구부에 남아있는 고부재와 창호 등이 고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민간가옥 중 가장 오래된 옛 모습 (600년)을 보여주고 있다. 뒤편으로 맹사성의 조부, 부친, 맹사성의 위패를 모신 세덕사가 있고 앞마당 한쪽에 큰 은행나무 두 그루가 세월을 말하는 듯하다. 스케치를 간 날 입춘이 한참 지났지만 봄을 시샘하는 폭설이 내려 그림으로 남겼다.

글·그림/서양화가 홍기욱





# 다시, '백제'를 생각한다

## 내포칼럼



윤용혁  
공주대 명예교수

코로나의 심각함 때문에 묻히고 있는 감이 있지만, 방탄소년단에 이어 '기생충'이 세상을 들썩이게 하였다. 한국인의 문화적 자존감이 극대화된, 자랑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어떤 이는 방송에 출연하여 BTS와 '패러사이트', 그 문화적 창의성의 유전인자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기이하기 그지없다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 호명되던 그때, 유명한 칠지도(七支刀)에 새겨진 글자 한 구절이 문득 내게 떠올랐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이런 칼은 없었습니다" '선세이래 미유차도(先世以來未有此刀)', 그것이 바로 칠지도였다. 그 칠지도를 만든 사람은 백제의 장인이었다. 칠지도는 칼에 7개의 가지로 장식을 낸 불가사의의 칼이다. 그 칠지도가 충청남도 서산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나는 농담 삼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였다. "BTS의 멤버가 일곱이라는 것, '패러사이트'의 주연 배우가 일곱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보니, BTS와 '패러사이트'는 칠지도를 만든 사람들의 유전인자가 작용된 것이 분명합니다."

1500년 전의 백제는, 충격을 주는 문화의 창조자였다. 금동향로와 부여 정립사지 탑이 그 예이다. 백제금동향로는 백제 여러 왕의 제향을 모실 때 사용했던 향로이다. 물을 박차고 승천하는 용을 대좌로 포착하여 오악사를 비롯한 만물상을 산 속에 빼곡히 장식한 본체를 놓고, 본체 위에는 봉황을 올렸다. 의미와 기능을, 뛰어난 예술성으로 배합하였다. 어떤 이는 봉황을 천계(天鷄)라고도 말한다. 천계란 봉황과 비슷한 신비의 상징 동물인데, 그것이 천계라고 하면 백제금동향로는

'계룡산'이 된다. 닭(천계)과 용과 산이 함께 어울려 있기 때문이다. 경주의 황룡사 9층탑을 만든 것도 백제의 기술자였다. 그렇게 목조 건축으로 지어지던 탑의 재료를 내구성이 강하고 경비가 절감되는 석재로 전환한 것이 백제였다. 그래서 정림사탑은 돌로 탑을 만들되 목조 건축의 풍모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신라는 백제의 모든 것을 배격하고 청산했지만, 돌로 탑을 만드는 그 아이디어는 계승 발전시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후 석탑의 나라가 되었다. 칠지도의 구절을 빌리자면, 역사 이래로 이런 향로가 없었고, 이런 탑은 없었다!

백제라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사람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제 사람에게 흘렸던 문화 창조의 유전인자가 소멸 되었을 리가 없다. 고려시대에는 정림사 탑을 모방한 백제 양식의 탑이 비로소 옛 백제 땅 이곳저곳에 세워졌다. 그 시대에 강진과 부안에서 만들어진 청자는 자기의 본산이었던 중국의 지식인도 감탄할 정도의 작품이었다. 강진, 부안이 모두 백제의 땅이었다는 것을 주목할 일이다. 그리고 청자 이후에는 공주 학봉리의 계룡산 자락에서 철화분청이라는 또 다른 미감(美感)의 도자가 만들어지게 된다.

나는 문화 창의의 중요한 원천이 지역, 그리고 지역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바야흐로 문화가 갖는 생산성이 주목되는 시대이다. '백제'라는 지역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역의 문화에서 백제인의 문화 창의의 유전인자를 다시 되살리고 확인하는 일, 그것이 충남 지역의 발전을 위한 우리 세대의 사명이며 지혜일 것이다.

BTS·기생충 등 한국문화 세계제패 문화우수성 뿌리는 1500년 전 백제 금동향로·칠지도 등 충격적 창조물

백제인 문화유전자 현대에도 이어져 지역정체성, 문화 창의의 핵심 원천 백제인 고유의 문화유전자 되살려야

# 위기에 대한 대응 및 관리, 그리고 여론

## 특별기고



이진  
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교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지칭하는 수식어는 참으로 다양하다. '세계화', '불확실성 사회', '제4차 산업혁명 또는 지능혁명 사회', 그리고 '위험 사회'까지.

'위험사회'라는 용어는 전 세계의 고전 중 하나로 꼽히는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저서, 『Risk Society』로부터 비롯되었다. 울리히 벡은 위험의 특성을 설명하며, 위험은 체계적이고 종종 되돌릴 수 없는 해를 끼치지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인과적 해석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초기에는 인간의 지식 견지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위험이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구성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나 지식인, 그리고 인식의 확산과 전달을 담당하는 언론의 역할과 영향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위험과 위기는 얼마나 잘 정의되고 관리되고 있을까?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전쟁을 포함한 외교, 군사 분야의 심각한 대립과 충돌, 정치사회분야의 극심한 분열 등을 국가안보상의 위기로 간주했다. 그러나 1997년 IMF 사태와 2001년 미국 9.11테러, 2004년 동아시아 쓰나미 등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에 가해지는 새로운 위협을 경험하고 목격하면서, 위기와 위협을 보다 포괄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124호)」을 제정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할 33개 위기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정립시켰다. 또한 「국가위기 경보체계」를 4단계의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하고, 전염병 뿐 아니라 테러, 산불, 원유수급, AI(조류인플루엔자)분야 등에도 적용했다. 그동안 재난과 질병분야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가위기 경보체계를 표준화한 것은 위기상황 발생 이후에야 대처하던 대응위주 관행에서 탈피,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 예방과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최근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를 두고 국가적 대응과 관리, 리더십에 대해 설왕설래(說往說來)가 한창이다. 분명한 것은 2월27일자 질

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월13일~25일 코로나19의 인구대비 검사비율이 한국이 1,173명당 1명, 일본은 6만7,000명 중 1명, 미국이 74만명 중 1명으로, 한국의 검사비율이 일본보다 60배, 미국보다는 700배 가까이 높다. 즉, 한국의 확진자 급증 이유는 방대한 검사자 수, 빠른 진단능력,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처 때문인 것이다. 실제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2.25), 독일 슈피겔(2.29) 기사, 미국 FDA 전 국장이었던 스콧 고틀리브나 호주 내무장관 피터 더튼 역시, 한국의 진단검사능력, 보건 행정의 투명성 및 개방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언비어와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이 시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부 집단도 있다.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론, 특히 국익을 해치고 국민감정을 왜곡, 분열을 유도하는 정치인과 전문가들. 모두 반성해야 한다. 상호 신뢰 없이는 대화와 타협은 이루어질 수 없고, 사회 기반이 되는 사회전체의 통합성(integrity)과 안정성도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울리히 벡이 강조했던 위험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나 지식인, 그리고 인식의 확산과 전달을 담당하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 그릿(GRIT)

## 나태주의 꽃핀편지



시인·꽃핀문학관장

최근 내가 읽은 책 가운데서 가장 좋았던 책은 미국의 심리학자 앤절라 덕워스 교수가 쓴 <그릿>이란 책이다. 책 이름 그릿이란 말 자체가 앤절라 교수가 만들어낸 용어다. 그릿(GRIT). 영어 단어의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에서 처음 글자만 따서 조합한 말이다.

이 책은 저자가 10년간 전세계적인 자료를 섭렵하면서 성공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을 종합한 책이다.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좋은 해답서이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꼭 보았으면 하는 책이다. 그래서 나는 중등학교로 문학강연을 가서는 시 이야기와 함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준다.

책이 참 섬세하고 아름답다. 문장이 진절하다. 마치 옆자리에서 누군가 앉아서 한 줄씩 조곤조곤 읽어주면서 읽어주는 것 같다. 새로운 이야기나 이론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저자 자신의 삶이나 가족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해주니 더욱 살갑게

다가온다. 한마디로 말해 그릿이라고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열정'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미국 사회에서도 한 가지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일에서 저 일로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가보다. 그래서 저자는 직업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생업, 직업, 천직이라고 말하면서 천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노력이라고 강조한다. '재능'을 바탕으로 '노력'하면 곧바로 '성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나오는데 이 기술을 다시 노력과 곱해야만 비로소 성공이 나온다는 것이다.

재능×노력=기술 → 기술×노력=성공, 결국은 이런 공식이 나온다. '재능×노력' = '성공'. 역시 실증주의에 강한 미국 사람다운 공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어영부영 되는 일은 없다. 끊임없는 집중과 노력만이 성공을 약속하도록 되어 있다.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 부모나 교사가 마땅히 읽고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보다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 확실하다. 읽어만 보시라. 속았다는 생각이 결코 들지 않을 것이다.

# 유언비어·가짜뉴스 일벌백계해야

## 생생현장리포트



임재통  
온양신문사  
편집국 실장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다. 최근 며칠은 자고 일어나면 하루 평균 수백 명이 넘게 확진환자가 늘고 있어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다. 그런데 이에 편승해 '유언비어'와 '가짜뉴스'가 범람해 그러지 않아도 생전 못 보던 감염병에 걸린 시민들에게 또다른 공포를 안겨다 주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세종시 첫 확진 환자가 나왔었다. 롯데건설 하자보수 담당 일용직 근로자인 이 환자는 20일 아산을 방문해 롯데캐슬 어울림2단지 AS센터에서 장비를 챙겨 3단지 1세대에서 줄눈 AS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일 오후부터 쏟아져 나온 뉴스에 이 환자는 20일 뿐 아니라 19-21일 사흘 동안 내리 아산을 방문해 작업을 했다면서 들르지도 않았던 편의점과 주요 시설을 열거해 일대 주민을 아연실색케 했다. 한술 더떠 그날 확진환자가 아산에서도 발생했다는 소문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도 했다.

이런 유언비어·가짜뉴스는 엉터리 제보를 받은 기자가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개중엔 석연치 않은 의도(혹은 착각)로 부풀려 보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SNS를 통해 퍼지는 양상을 보면 단독 게시물을 통해 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의 게시물이거나 관련 뉴스에 댓글 형식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딱 들은 만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살을 보태 댓글을 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출처불명의 댓글이 몇 단계를 거치면 마치 사실인 양 각색돼 버젓이 기사로 등장하기도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한 교민이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수용 결정이 났을 때도 유언비어가 난무했었다. 마치 교민들이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라도 되는 듯이 그들이 그곳에 수용되면 새와 쥐가 바이러스를 옮길 것이라는 등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부풀리기도 했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학습효과를 봤음인지 이후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는 즉각 환자의 주변과 역학조사(이동 동선) 결과가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바로 발표돼 유언비어가 나돌 틈을 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혼란은 잠재웠다.

유언비어는 대개 당국의 발표가 석연치 않을 때 발생한다. 불성실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거나 뭔가 감추려고 할 때 소문은 훨씬 부풀려져서 퍼진다. 따라서 당국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빠르게 발표해줘야 한다. 더해서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네티즌과 언론이 있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생활 예방으로 극복합시다.

수시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침은 옷소매나 손수건을 사용하세요. 손을 씻지 않고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기침, 발열이 나면 마스크를 쓰고 외출도 자제해야 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보건소나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으로 상담 후 자가용을 이용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자가격리기간 14일 동안은 외출이 금지되며 반드시 혼자서 생활하셔야 합니다. 동거인과 대화나 접촉이 없어야 하며,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 예방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도정신문팀



## 꼭! 기억해야할 국민 예방행동수칙



물과 비누로 꼼꼼히 30초이상 자주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시 마스크 꼭 착용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누로 꼼꼼하게 30초이상, 기침할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



대학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찰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먼저 상담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그것이 궁금하다!

### Q 코로나19 주요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발열·오한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염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Q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Q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서 얼마나 살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에서 떨어지면 사멸(죽어 없어짐)합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침 같은 분비물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생존했다가 사멸합니다.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의 환경에서는 수일 동안 살 수 있으나,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가 증상을 발현시킬 수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현재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 환경을 통한 전파 사례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 Q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Q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단은 채로 방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Q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주나요?

-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Q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검사 비용은요?

- 의사환자와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진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판단되면, 진단 검사비용은 결과가 양성이면 음성이면 무료입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Q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Q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체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행복 키우는 관광두레...“젊은 아이디어와 삶 결합하는 플랫폼”

## 더 행복한 마을

### (34) 공주 반죽동 하숙마을

공주의 가장 씨앗 같은 반죽동  
원주민-하숙생의 삶과 추억공간

‘금강과사람들’ 협동조합 중심  
‘주민들의 삶’을 콘텐츠로 승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  
돌아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가수 최희준이 부른 노래 〈하숙생〉의 도입부다. 이 노래의 작사가 김석야는 천안 출신으로, 공주고와 공주사대를 거치며 이곳 하숙마을에서 청춘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지난해 공주시 반죽동 일대 한옥 고가들을 리모델링해 오픈한 공주 하숙마을, 게스트하우스 겸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곳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기까지 협동조합 금강과사람들은 오랜 시간 물밑 작업을 해 왔다.

지난 13일, 협동조합이 충남형 관광두레마을을 육성 사업제 중 한 곳으로 선정되면서 최금옥 대표와 조합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됐다. 최대표는 “금강과사람들은 지난해 3월 법인등기를 마친 새싹조합”이라고 소개했지만, 조합원들 상당수는 오래



공주 하숙마을 내력을 담은 벽화 골목

전부터 지역 토박이로 반죽동 인근에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중엔 직접 하숙을 했던 하숙집 주인도, 대한민국 소반명장 1호인 유석근 명장과 같은 예술가도 있고, 이들은 오래전부터 반죽동 골목과 공주 구석구석을 누비며 경험을 쌓아왔다.

하숙마을의 추억과 삶을 다시 되살리려는 아이디어는 반죽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민간단체 골목길협회의로부터 나왔다. 조합이사도 활동하고 있는 유혜숙 이사는, 2013년 무렵 골목길협회를 꾸려 반죽동 골목을 누비며 추억을 되살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특성상 공주고와 공주여고, 공주사범학교 등이 밀집되어, 1960~1980년대 사이 이 동네는 가장 활기가 넘치고 젊음이 모여들던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숙 문화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하숙생들과 젊은 자녀

들이 떠난 골목엔 노부부나 홀로 된 어르신들만이 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골목길협회는 이런 골목에 사람 사는 냄새와 생기를 되살리고자 하숙마을을 떠올리게 됐고, 도와 시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다.

당초 협의회가 주목한 공간은 공주갑부 갑갑순 가옥과 터였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매입하기가 어려웠고, 마침 한일한약방 주인이 자신의 집을 내놓아 인근 빈집과 함께 하숙마을의 첫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갑갑순 가옥은 물론 인근 가옥들도 사업 동참 의사를 밝혀와,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숙마을이 문을 연 이후, 마을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찻집과 책방, 제과점 등 다양한 가게를 열면서 관광객들을 맞았다. 덕분에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적막감이 감돌던 골목은 오가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물론



반죽동 앞에서 최금옥 대표(왼쪽)와 유혜숙 이사

하숙마을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 모델이 마련됐다.

“이 골목엔 예전에 하숙집을 운영하던 사람들과 집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분들의 삶의 기억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협동조합이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활동이 될까 고민하면서 관광두레를 구상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예전부터 해 왔던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하숙체험’을 떠올렸어요. 올해부터는 ‘하숙생 아주머니의 손맛을 깨우다’란 이름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도 준비 중이에요. 두부나 인절미를 만들어 나눠 먹고, 아침엔 하숙집 밥상을 받고, 하숙집에서 짜주는 도시락을 들고 골목 여행을 떠나는 거죠.”

관광두레를 통해 추구하게 될 여행의 모습이 기대된다. 최 대표는 마을

기업을 더 키워 젊은 친구들이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직은 초기인 만큼 먼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새롭게 들어올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고 싶다는 것.

“언제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으니, 젊은 아이디어와 원주민의 삶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조합이 시작할 때 뜻이 맞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고민하며 시작한 만큼, 지금도 우리는 이 일을 하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계속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건네주는 말 한 마디, 앞장 서 골목을 쓸어주는 마음, 손이 필요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나와 도와주는 행동력이 두레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골목길이야기꾼이자 조합의 이사로 활동하는 유혜숙 이사의 말이다.

아직 하숙마을의 유명세에 비해, 하숙마을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채워가는 사람들에 대해선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최대표의 바람처럼, 초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통합된 플랫폼 안에서 활동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해 보인다.

공주 하숙마을의 진면목과 집집마다 숨어 있는 삶의 내력이 궁금하다면, 제민2길 12번지에 위치한 금강과사람들의 사무실 문을 두드려보자.

/손유진 syj0319@korea.kr

## 코로나 극복 흥성 딸기 10t 첫 태국 수출

베트남·홍콩 마카오 이어  
싱가포르 일본 수출도 박차



**[흥성]** 흥성군이 흥성딸기의 해외 판로 확대에 코로나19 극복에 나서고 있다.

흥성 명품딸기 ‘아리향’이 태국과 첫 수출계약을 맺으며 본격적인 해외 판로개척에 나섰다.

‘흥주 아리향딸기 영농조합법인’과 태국은 아리향 딸기 10t 규모(약 4억원 상당)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고

2017년에 등록된 신품종인 ‘아리향’은 전국 최초로 흥성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한 뒤 국내 백화점 및 대형 마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지난해부터 홍콩, 마카오, 베트남에 5t규모를 수출했다.

흥성군은 이번 태국 수출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와도 수출협상에 성공해 10t규모의 아리향 딸기 수출을 앞두고 있다. 군은 동남아 진출에 이어 일본 등 본격적인 해외 판로 개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정신문팀

## 청양군 농부마켓, 우수 사업장 선정

충남 지자체 중 최초 인증

**[청양]** 청양군의 로컬푸드 직매장 ‘농부마켓’이 충남 지자체 중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선정됐다.

농부마켓은 농산물 취급 비중과 취급 수수료율, 직거래 생산정보 표시, 생산자 관리(중소농·고령농·여성농 참여 등), 안전성 관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증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농부마

켓은 인증판 부착, 홍보비 지원, 전국 우수사례집 발간, 직거래 지원사업 참여 시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청양군은 올해를 푸드플랜 대도약의 해로 선언하고 지역과 대도시 직매장 출하 농산물 기획생산과 품목확대에 나서고 있다.

/청양군 제공

## 황새가 논산에 나타났다

논산 외성교 근처서 발견  
예산 황새마을 방사 추정

**[논산]** 지난 달 쇠부엉이에 이어 이번에는 황새(천연기념물 199호)가 논산에 나타나 화제다. 이번에도 황새를

발견한 이는 지난 날 쇠부엉이를 제보했던 광석면의 김권중 이장.

평소 지역의 생태와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김 이장은 지난 주 부적면 외성교 아래에서 황새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이 황새는 예산황새마을에서 방사됐



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과 천연기념물 199호로 지정(1968년)돼 있다. /논산시 제공

## 항일의병 抗戰의 섬, 녹도

새로 배우는 충남학

1907년 대한제국 군대해산 맞서  
일본군 10여명 사살 전과  
위험 무릅쓰고 의병 도와



녹도 항일의병전적비

녹도는 주벽어업으로 예부터 풍요의 섬이었는데, 대한제국 군대해산에 저항해 일어난 정미의병의 역사적 장소가 되었다.

1907년 8월 해산군인들이 주도한 의병이 봉기한 상황에서 보령의 이웃 고을인 흥주의 분건대가 봉기했고, 그들 중 4-5명이 오천을 통해 녹도에 들어와 도적으로부터 녹도의 풍요를 지키며 의병 투쟁을 전개하였다.

첫 투쟁으로 군산과 인천을 왕래하는 섬 주변 항로를 운행하는 일본 화물선을 공격하여 쌀과 소금을 빼앗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 사건 후 군산의 일본군 수비대 병력 10여 명이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녹도에 들어와 의병이 숨은 곳을 찾으려고 주민들을 가혹하게 조사하였다.

주민들은 보복과 고초의 위협을 무릅쓰고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의병들은 포구에 매복하고 있다가 일본군의 배가 밤에 동풍에 밀려 해안으로 떠밀리자 1907년 9월 8일 포구의 ‘돌곶’과 ‘노랑바위’에 은신하여 사격을 가하며 치열한 전투

를 벌여 일본군 10여명을 사살하고 배를 침몰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그리고 의병들은 보복을 피해 주민들에게 섬을 떠날 것을 권고하고 주민들과 함께 섬을 떠났다.

그 후 9월 14일 군산에서 의병 진압을 위해 일본군과 경찰이 들어와 이장과 남은 주민들에게 의병의 소재와 상황을 조사하려 했으나 협조하지 않자 이장을 살해하고 녹도를 초토화했다.

남은 사람들은 호도로 헤엄쳐 피신했는데 추격해온 일본군에 의해 호도와 삼시도 당산이 화재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초토화된 녹도의 주민들은 잠시 섬을 떠났으나 다시 돌아와 섬과 주벽마을을 복구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섬을 만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녹도에 항일 의병 활동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협조한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황의호 보령문화원장





# 반갑다 주꾸미야, 태안산 봄 주꾸미 풍년

작년 보다 30% 수확량 늘어

**[태안]**봄 제철음식인 ‘태안산 주꾸미’가 풍년이다.

군에 따르면, 제철을 맞은 태안산 주꾸미는 1kg당 1만 1천 원 선(몽산포 위판장 2월 27일 기준)에 위판가가 형성돼 있으며, 수확량은 하루 14톤 가량으로 지난해에 비해 20~30% 가량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인구가 크게 줄면서 주꾸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어가에서는 자구책으로 주꾸미의 내장과 먹통을 제거해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손질 주꾸미’를 택배로 판매해 그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태안산 주꾸미는 알이 짝 차고 맛이 좋아 봄철 별미 중 최고로 손꼽히며,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좋아 피로감이 몰려오는 봄철에 먹기 좋은 음식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 주꾸미는 개펄과 모래가 적절히 섞인 청정해역에서 자라 맛이 일품”이라며 “많은 분들이 봄 제철음식인 태안 주꾸미를 드시고 힘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꾸미는 살짝 데쳐 초장에 찍어 먹으면 좋고, 탕·찜·구이·볶음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며 특히 봄철 산란기에는 오독오독 씹히는 맛까지 더해져 주꾸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태안군 제공

# 유관순을 수양딸로 삼은 근대 여성교육 어머니

사애리시 여사 3월 역사인물 선정 공주에 충청도 최초 여학교 설립



**[공주]**공주시는 3월 이달의 역사인물로 근대 여성교육의 어머니 사애리시를 선정했다.

사애리시(1871~1972, 사진)는 1900년부터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출국을 당할 때까지 공주를 중심으로 선교사와 교육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헌신했으며 공주에 충청도 최초로 여학교를 세워 유관순 등 많은 여성들을 교육으로 일깨운 근대 여성교육의 어머니로 불린다.

사애리시는 초등 교육을 받지 못했던 부녀자들과 소녀들을 위한 야학을 개설했고, 사애리시가 이끈 야학은 학교 설립으로 이어져 1905년 가을 명선여학당(현재의 영명학교)이 창설됐다.

명선여학당은 중등교육을 목표로

했었지만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던 여성들을 위해 연령이나 능력에 관계 없이 학생으로 받아들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사애리시는 한국에서 함께 활동하던 남편 샤프 선교사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충격을 받고 한국을 떠났지만 남편이 묻힌 공주가 그리워 1908년 다시 공주로 돌아오게 된다.

공주로 돌아온 사애리시는 충남지역에 20여 개의 교육기관을 세우고 많은 여성 인재들을 양성했으며, 특히 유관순을 수양딸로 삼아 영명학교를 거쳐 이화학당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사랑과 봉사로 헌신하던 사애리시는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출국당한 뒤 말년을 로스앤젤레스 선교사 양로원에서 지내다가 1972년 101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공주시 제공

#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관광자원 활용

부여군 백제왕도 유적

발굴현장 역사체험 진행

**[부여]**부여군은 3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부여군 내 학술발굴조사 현장을 상시 공개하고 매장문화재 발굴현장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재)백제고도문화재단(원장 이기운)과 함께 ‘백제왕도핵심유적 발굴

현장 속으로’라는 주제로 부여군 내 매장문화재가 갖는 고유한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고 발굴현장의 관광자원화 한다는 계획이다.

부여군이 매장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은 처음이다.

군은 올해 발굴조사가 예정된 부여 부소산성(사적 제5호),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부여 화지산유적(사적 제425호), 부여 가림성(사적 제4호)을 중심으로 발굴현장 체험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부여지역의 백제시대 문화유적 특강과 탐방을 할 수 있는 ‘걸어서 백제 속으로-사비도성의 성곽 사비도성의 사찰’, 문화재 발굴 및 유물복원을 체험할 수 있는 고고학 진로 체험도 진행한다.

/부여군 제공

# 김대건의 당진성당에 베트남 신부 부임

“이웃 보살핌으로 정착”

**[당진]**천주교 대전교구 당진성당(주임신부 이경열)에 베트남 출신 보좌신부가 부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17일 부임한 유덕신(Nguyen Duc Tin) 베드로 보좌신부는 남베트남 출신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뒤 22살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 신학을 공부했다.

가톨릭 인구가 9% 정도인 베트남에서 가문 대대로 신앙생활을 이어온 유덕신 보좌신부는 2013년 파리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뒤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으로 2014년 한국으로 파견됐다.

유덕신 보좌신부는 한국에 온 뒤 서강대학교에서 2년6개월 동안 한국어 배웠고, 천안 성정동성당에서 3년간 사목한 뒤 올해 당진성당 보좌신부로 부임했다. 당진성당에서는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미사를 담당하고 있다.

유덕신 보좌신부는 “고향 베트남을 떠난 지 18년이 지났다”며 “당진성



당 신자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잘 정착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느님의 교리 안에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1653년 프랑스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창설한 파리외방전교회는 선교 사제를 양성해 아시아로 파견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도 이곳에서 사제가 됐다.

임아연/당진시대 zelkova87@hanmail.net

# 암 예방 성분 ‘셀레늄사과’ 특허 출원

예산군내 30여 농가 재배

인천원에농협 전량납품 성과

**[예산]**예산지역 농민들이 ‘셀레늄사과’를 특허출원했다. 셀레늄은 브라질 너트에 다량 함유돼 있으며,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다. 영양제 등으로 보충해왔던 셀레늄을 사과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게 된 것.

개발에 나선 예산셀레늄사과생산자사업단(정연순 단장)은 지난 2018년부터 동아대학교와 협력해 셀레늄 액제를 사과잎 표면에 주기적으로 뿌려주면 과실에 이 성분이 더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사업단을 꾸려 농가들과 함께 본격적인 재배를 시작했다.

최근 수년 간 이상저온과 태풍 등으

로 사과 생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셀레늄사과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

지난달 14일에는 인천원에농협 산산공판장과 2019년산 셀레늄사과를 전량 납품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사업단에는 군내 30여 농가가 2만 여평에 셀레늄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셀레늄사과는 일반사과보다 당도가 1~2브릭스 정도 더 높다. 또 30여분이

지나면 갈변하는 보통 사과와 달리 1시간 가까이 색이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사업단은 올해 50농가까지 확대해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토양은 특성상 셀레늄 함량이 극히 낮아 국내 농산물에 이 성분이 거의 함유돼있지 않다는 점에서 착안했다”며 “사과 1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섭취량을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로/무한정보신문 srgreen19@yesm.kr



예산셀레늄사과생산자사업단 정연순 단장이 사과농장에서 셀레늄사과를 보여주고 있다.

# 서천 생태학습여행 참가자 모집

4월부터 시행예정

**[서천]**서천군은 4월부터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서천 금강하구 생태학습여행’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한다.

2015년부터 운영된 생태학습여행은 지

난해 25개교 1166명이 이용한 검증받은 프로그램으로 자유학기제에 맞춰 교과과목과 연계한 학습 과정을 제공한다.

자연환경 해설사와 습지 안내인이 전체 일정에 동행해 전문적인 생태학습을 도울 예정이다.

서천은 2020년 세계자연유산등재를 바라보고 있는 서천갯벌을 비롯해 세

계 5대 기후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국립생태원과 해양생태계의 선도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생태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올해에는 그동안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하면서 겪었던 여러 불편함을 개선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했다.

참여 신청 및 교육일정 협의는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041-956-40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군 제공

# 코로나 어려움 화훼농가 돕자

민관 꽃 소비 동참 나서

**[당진·태안]**민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 돕기에 나서고 있다.

충남지역에서는 483곳의 화훼농가(재배면적 370ha)에서 연간 6903만 1000본의 꽃을 생산하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규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화훼농가들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지난달 당진화력은 지역 화훼농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복 에

너지 꽃 DREAM’ 행사를 기획해 총 700개의 꽃다발과 30개의 꽃 바구니를 주문 제작, 시민들에게 주문제작한 꽃들을 전달했다.

(사)한국화훼협회 태안군분회는 태안군청 민원실 앞에서 ‘미나 꽃다발 나눔 행사’를 열고 꽃 소비에 동참을 당부했다. 태안에는 207개 농가(재배면적 160ha)가 꽃을 생산, 연간 1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서천군농업기술센터도 ‘원 테이블, 원 플라워’(One-Table One-Flower)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오현덕/콘티비충남방송 ysimomy@naver.com





# 예산 덕산에 세계인형박물관 탄생

온천장 건물 박물관으로 개조  
시대 국가 초월한 2500점 전시  
윤봉길 등 예산 인물 제작



추사 김정희와 윤봉길 의사 인형

[예산] 예산군에 '덕산세계인형박물관(관장 조영희)'이 최근 개관했다.

이곳에선 시대별, 국가별, 문화별로 다양한 인형들을 만날 수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성처럼 생긴 박물관의 외형이 신비로운 느낌을 풍긴다. 온천장이었던 건물을 박물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꾸미는 데만 2년이 걸렸다고 한다.

전체 2500여점의 인형과 미술품 등을 층마다 주제별로 전시해 관람객들이 그 특징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층에는 기획전시와 인형공방작품, 신인작가들을 위한 전시방 5곳이 펼쳐져 있다. 신인작가와 지역작가들을 양성하고 그들과 교류하기 위해 무료로 전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2층은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에스키모, 인디오 등의 방으로 나뉘진다. 조영희 관장이 20년여 수집해 온 현지 인형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각국마다 다른 인형의 의미와 소재, 의상, 모양 등이 설명돼 있어 인형 속에도 고스란히 담긴 그들의 문화와 풍습, 특징 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아시아의 한국관에는 박물관의 김정선, 방미연 두 전속작가의 작품이 전시돼 있으며, 윤봉길 의사, 추사 김정희 등 우리지역 인물도 인형으

로 만날 수 있다. 3층은 1890년대부터 현대까지 앤틱과 빈티지 인형들이 시대별로 꾸며진 전시장이다.

다양한 인형들은 조 관장과 흥태운대표가 수집하고 직접 제작한 작품이다.

인형이 입은 의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예술과 문화적인 특징이 집약돼 있다.

조 관장은 그런 것이 좋아 하나둘 모으던 것들이 방대해졌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박물관을 열게 됐다고 한다.

“아이들은 인형을 보면 마음이 자라고 어른들은 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형을 통해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산과의 인연에 대해 조 관장은 “윤봉길 의사를 항상 존경하고 덕산은 천을 즐기셨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덕산과 인연이 닿았다”며 “예산은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많아 직접 제작하고 싶은 창작욕구를 끌어올리는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했다.

김두레/무한정보  
dure1@yesm.kr

# “말은 생각의 샘물입니다”

이내무 시인 8번째 시집 발간  
서울지하철 2호선에 소개돼

[아산] 평생을 교직에 종사하면서 문학인의 길을 걸어온 임곡(林谷) 이내무(85) 시인이 여덟번째 시집 ‘나는 나무이고 싶다’를 펴냈다.

도서출판 목민에서 발간한 이 시집은 총 5부와 2002 월드컵 관련 시, 그리고 이 시인의 시를 대한 시민 등의 시선이 담긴 블로그, 뉴스, 평설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 ‘봄바람 꽃바람’, 제2부 ‘여름나무 숲바람’, 제3부 ‘가을나무 단풍바람’, 제4부 ‘겨울나무 눈꽃바람’, 제5부 ‘망중한 미풍’에는 각 18편씩

90편의 시가 상재돼 있으며 ‘2002 월드컵을 인방에서’에는 11편의 시가 월드컵 사상 최초 4장의 위업을 달성한 그날의 감동을 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내무 시인의 시 중 ‘말은 생각의 샘물입니다’ 구절을 서울 광화문, 명동, 강남대로 등을 통과하는 4개 노선 시내버스(15대) 외부 좌·우측면과 뒷면에 부착해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충남 태안에서 태어나 공주사범대학 국문과를 졸업한 이내무 시인은 순천고교 교사로 출발해 아산고에서 정년을 맞았다. 교직생활 총 41년간 절반 이상을 아산에서 보냈다.

이혜진/온양신문  
seinhj@nate.com

# 이응노의 집 입주작가 3명 선정

고암 작품세계 확산 기대

[홍성]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은 올해 창작스튜디오에서 활동할 제4기 입주작가 3명을 선정했다.

‘이응노의 집’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화·시각예술·공공예술부문 제4기 입주 작가 공개모집에 제작년보다 약 2배 높은 28명의 예술가가 지원해 ▲김제원(지역 리서치·설치미술) ▲정직성(회화) 등 총 3명이 선정된 것.

이응노의 집 관계자는 “이응노 화백의 철학과 작품성이 기념관 안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으로 확산돼 문화적 활력을 줄 수 있는 작가들 위주로 선정했다”며 “이런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4기 입주 작가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응노의 집에 위치한 창작스튜디오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홍성군 제공

## 충남 도민참여 온라인 소통 플랫폼 만사형통충남

# 당신의 희망을 들려주세요!

**[만사형통충남]으로 제안하는 방법**

- 1 충남도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충청남도 민관합치]를 선택합니다
- 2 상단의 메뉴 중 [만사형통충남] 선택 후 [아구동성(도민제안)]을 클릭합니다
- 3 본인 인증 후 우측 중앙의 [제안하기]를 선택하여 제안글을 남깁니다.

**제안된 아이디어(의제) 선정과정**

- 도민 제안
- 해당 부서 검토
- 도민참여단 숙의를 통한 의제 선정
- 지휘부 회의를 통한 최종 선정

비예산 사업 : 즉시 실행 / 예산 사업 : 3년 내 시행

※ 도민참여단 숙의과정에서 채택된 제안은 도민참여예산제와 연계추진  
※ 문의사항 충청남도청 공동체정책과 041-635-2274

# 아이와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사서들의 서재



〈로알드 달/2019〉

책의 글밥이 많아지는 아이의 독서전환기에 아이와 독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싶다. 첫째는 아이를 유혹할 흥미로운 책을 추천하는 것, 둘째는 아이와 부모가 책을 함께 읽고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독서는 평생에 걸쳐 해야 하는 장거리 경주이다.

그 입문서로 로알드 달의 《제임스와 슈퍼복숭아》를 추천한다. 저자 로알드 달은 현대 동화에서 “가장 대담하고, 신나고, 뻔뻔스럽고, 재미있는 어린이 책”을 만든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손꼽힌다.

《제임스와 슈퍼복숭아》는 어느 날 갑자기 고아가 되어 버린 제임스가 고약한 고모들에게 벗어나, 마법의 힘으로 엄청나게 커진 곤충 친구들과 함께 집채만 한 복숭아를 타고 여행하며 겪는 신

나는 모험담이다. 제임스는 상어 떼와 구름나라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곤충친구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헤쳐 나간다. 마침내 제임스는 영국에서 미국까지 대모험을 마치고 세계 유명인사가 된다.

제임스의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는 아이들을 책 속 상상의 세계로 빠지게 한다. 제임스가 지혜롭게 위기를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는 대리만족을 느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다. 또한 하루종일 파리, 모기를 잡고 좋은 일만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려고만 한다는 거미 이야기, 정원의 모든 흙은 자신을 거쳐 간 것이라고 말하는 지렁이 등 곤충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곤충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아이가 책의 두께를 보고 겁을 낸다면 모험이 시작되는 7장까지만 읽어주면 된다. 그 후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읽게 될 것이다. 책을 함께 읽고 그 주제가 무엇 이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부모의 작은 노력이 아이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찾게 해 줄 것이다.



최현주  
충남도서관 사서



### 우리지역 일꾼을 만나다

충남도의회는 각 지역을 대표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지역의 일꾼들이다. 충남 도정신문은 제11대 도의회 42명의 도의원을 차례대로 소개한다. 각자 주력하고 있는 정책과 각오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내포문화권 발전·관광자원화 매진”

김기영 의원(예산2)

내포보부상촌 조성 등 활성화 매진

예당호 체류형 관광지 정착 고민



필수 과제다. 저출산·인구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동적인 일자리 창출로 고용을 증가시키기 보단 스스로 자신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분석해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겠다.”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예산군은 지난 4월 6일 국내 최장 402m 길이의 예당호 출렁다리를 개통했다.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 체류형 관광지로 굳건히 자리잡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예산군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약 3개월 간 ‘예당호 출렁다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출렁다리를 비롯한 주요관광지 주변 음식점 매출이 평소보다 서너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 특색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지 주변 인프라를 더욱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소비 유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

내포문화권 활성화에 노력해 왔는데 “지난 7대 충남도의회에서부터 11대에 이르기까지 내리 당선돼 지역 발전에 노력해 왔다. 이번 대안 정주여건 미흡 등 문제를 안고 있는 내포지역 발전을 위해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신도시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내포문화권 관광자원과 향토문화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내포문화권은 서해안 항포구를 중심으로 상업행위가 발달했던 곳인데, 도내 15개 시군 중 8곳이 내포문화권에 속한다. 특히 충남의 보부상 중 하나인 예덕상무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67년간 한 차례도 끊기지 않고 전통 고제를 개최해 왔다.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매진했고, 오는 4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 발길을 이끌 수 있도록 도내 관광자원 개발은 물론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

도 차원의 시급한 현안을 꼽는다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다. 이같은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자녀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로 조정해 더 많은 도민에게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자녀 혜택을 넓히는 등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 역시 함께 해결해야 할

## “지방이 살아야 국가도 산다”

김한태 의원(보령1)

관광 활성화·균형발전 등 촉구

화력발전 폐쇄 대책 요구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한다면 “지난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맑은 하늘을 되찾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없도록 1·2호기 연료를 석탄 대신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의 피해 방지와 보상을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앞으로 보상은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급한 지역 현안은 “보령시는 농업과 수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와 고부가가치 산업의 부족, 고령화 심화로 인해 인구가 나날이 감소하고 있고 도시 경쟁력 또한 약화되고 있다. 게다가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늘리기는 지역 특성상 다른 도시보다 어려운 현실이다. 보령 발전을 위해선 수산업과 해양관광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보령은 서해안 최대의 대천해수욕장은 물론 136km의 긴 해안선, 90개 유무인도 등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 중 최고 등급인 ‘대표축제’를 5년 연속 유지하고 졸업한 ‘보령머드축제’를 통해 매년 수백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또한 국도77호 원산안면대교가 개통되고 내년 준공될 국내 최

장 보령해저터널이 뚫리면 서해안 최고의 신 해양 관광도시로 떠오를 기반을 갖추게 된다. 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보령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해양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도내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는데 “지방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다. 도내 15개 시군 중 보령을 포함한 10곳이 인구감소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교육과 문화, 복지, 의료시설 기반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로·교통 인프라, 어촌·어항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지방 소멸 위기는 곧 국가소멸 위기와 같기 때문이다.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도 온전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우선 동네 간 지역격차, 즉 동과 면 단위 간 격차를 해소코자 한다. 보통 농어촌 지역일수록 정주여건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인구 구성 연령대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젊은이들이 농어촌에 없다는 얘기가. 정부와 지자체는 정주하고 싶은 지방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경쟁력 있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도의원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겠다.”

### 의원시론

##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이란



이공휘 의원

충청남도 도민들은 우리 도의 공유재산에 대해 안심해서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 이유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이란 첨단 정보통신(IT)기술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도면 중심 공유재산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산화 사업 계획이다.

공유재산을 ‘유지·보수’에서 ‘개발·활용’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변화함으로써 토지이용가치 증대를 통한 공공목적 최적 활용 및 재정확충을 꾀할 수 있고, 고정밀 항공사진 지적도 등 도면 중심의 공간개념으로 재산관리 체계를 전환해 항공사진을 활용한 지리·교통 여건 분석으로 재산가치 재평가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을 토대로 추진됐다.

이는 본 의원이 2016년부터 공유재산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면서 2017년 시범적으로 안면도의 공유재산을 공간정보화 하여 활용해보니 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껴 제안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유재산의 매각 내역, 대부현황 등의 공유재산 기초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다음으로 연도별 고해상도 항공사진, 지적도, 수치지형도 등의 DB를 구축했다. 아울러 토지·건물 등 관련 부동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게 만들으로써 공익사업 취득·처분, 소면적 규모화, 재산교환 등 정책 결정을 지원할 시스템을 만들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시스템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을 했으며 공유재산 이용가치 제고 및 공익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관리의 행정 선진화를 통한 업무혁신 및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충청남도 공유재산 총 28만 5천건 4조 8212억 원(토지 7만 7598필지, 154㎢, 2조 491억 원)이 단순 문서화된 대장으로 소극적으로 ‘유지·보수’ 형태로 관리하던 것을 적극적 ‘개발·활용’으로 재산관리하는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연도별로 다분면 비교장을 통해 무단점용이나 불법 점용 현황을 시계열로 확인하고 점검한다. 토지정보(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용규제(용도 지역·지구), 건축정보(건축연도, 건폐율, 연면적, 용도 등), 주변 개발정보 등을 팝업창을 통해 보여준다. 아울러 매각가능한 토지현황, 토지를 지목별·가격별 분포, 대부현황(용도별, 금액별, 대부기간), 건축물 용도별 분포, 노후건물 현황 등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로 ‘행안부 공유재산 정보화 장기 계획’ 수립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공유재산분야에서 전축 선도로 우리 도의 위상을 높였다. 올해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을 포함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본 의원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소재로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19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 행정혁신 분야의 지방의원 대상을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겠다.

## 당진항을 대한민국 제1항만으로



이계양 의원

당진항이 무섭게 커나가고 있다. 물동량이 2007년 826만여 톤에서 지난해 6650만여 톤으로 급증했다. 물동량 증가율만 보면 국내 항만 중 최상위권이 며 이미 전국 5대 항만의 반열에 진입한지 오래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우리의 의지와 더불어 천혜의 입지조건과 수십 년간 구축된 철강클러스터 등 나라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에도 국가에서 그 육성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예컨대 당진항은 2017년 5089만 3987톤(당진화력 물동량 제외)의 화물을 처리하며 평택항과 대등한 물동량을 기록했지만 부두시설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부두시설은 충청권에서 생산된 많은 제품들이 부산항과 광양항, 인천항, 평택항을 경유해 수출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는 제품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면서 충남은 물론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남해로 집중되는 해운항만물류를 전략적으로 분산시키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 도모와 환(環)황해권 발전의 기반구축에 나서야 한다. 특히 미래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부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반영할 충청남도의 신청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국가사업화 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제3차(2011-2020) 항만기본계획에 당진의 고대·송악지구는 6건, 평택의 포승지구는 16건의 공사가 계획됐다. 이는 현재의

당진항과 평택항의 불균형적인 발전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그만큼 올해 확정된 4차 항만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충남의 해운항만 분야와 당진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항만 개발 사업에 대한 물동량 등을 검토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지난해 말 충남도 사업 중간 검토결과 는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충남도가 신청한 32건의 사업 중 7건만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3조 원 중 2000억 원도 안되는 규모다.

이에 도의회는 2월 21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충남도 신청사업의 적극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보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충남도청에서 열린 해양산업발전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대통령은 “바다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충남도의 의지가 가장 훌륭한 역량”이라며 “정부도 충남의 의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당진항 등 충남의 각종 항만 발전사업의 국가사업화야 말로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의 의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해양부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당진항을 품고 있는 충남도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 그 첫 발걸음이 바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충청남도 신청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최대한 펼쳐내는 것이다.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이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317회 임시회 5분발언 및 조례안 심의

### “농어민수당 80만원 이상 개별 지급해야”

김명숙 의원(청양)은 지난달 21일 충청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어민수당 지원금액 재원부담비율, 지급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잠시 후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는 올해부터 연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게 된다”며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을 개별농어민이 아닌 농어가당 연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시군과 협의해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방식을 정할 때 시군에 부담해야 할 재원비율을 80만원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



김명숙 의원

원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농어민을 위한 수당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득 역외유출 방지 등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민수당 지급방식도 지역 화폐·상품권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20만 충남도민중 농업인 비율은 12%지만 농업의존도는 37%에 이르며 2000만 원 미만 소득의 농가비중은 75%가 넘고 66세 고령농업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2021년부터는 농어민수당을 농어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보건지소 중심 ‘농촌복지체계’ 구축하자”

양금봉 의원(서천2)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충남형 농촌복지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지난달 21일 있었던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활력을 잃은 지 오래”라며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지역커뮤니티가 참여하는 통합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조직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읍면동사무소에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처럼, 농촌지역 보건지소



양금봉 의원

에 보건복지 기능을 보장하고 행정사업과 민간활동을 융복합한 민관협력형 수요자 중심의 공동체 복지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이 충남형 농촌복지체계의 핵심이다.

양 의원은 “주민 복지관련 수요를 최소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행정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수행한다면 수요자 중심의 공동체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와 건강한 만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KTX고속철도망 구축 전담팀 꾸려야”

이종화 부의장(홍성2)이 충남 서부권 KTX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전담팀(TF)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서부권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KTX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TF팀 구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기존 선로를 활용해 서해선복선전철 구간(평택시 청북면)과 경부고속철도 구간(화성시 향남읍)간 근접 최단거리 7.5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부의장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이 직결



이종화 의원

대신 환승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0분대 주파의 꿈은 물거품이 됐고 도민들에게 큰 실망과 허탈감을 안겼다”며 “서해선과 수도권권을 직결하는 서부권 KTX고속철도망 사업은 최적의 대안 노선이자 국가균형발전, 지역갈등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협의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TF팀 구성 등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 “어업지도선 운영방식 개선해야”

정광섭 의원(태안2)이 지난 21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어업지도선 운영상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 어업지도선은 모두 9척으로 충남도에서 1척, 서산과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등에서 8대를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어업지도선을 운용하고 있지 않거나 휴무일에는 대부분 보령 대천항에서 대기 중인 어업지도선 한 대만 지도·단속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각 시군 해상 경계에서 불법조업 등으로 신고를 받게 되면 관할구역 넘더라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도선이 출동해 임무수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정광섭 의원

정 의원은 또 “도내 총 9대 어업지도선 중 툰수가 작거나 내수면에서 운용하는 보트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대에 불과하고 인력도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도내 모든 어업지도선을 통합해 광역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행법상 도지사각 시군 어업지도선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우리 어민들이 타 시도나 중국 불법어선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해 ‘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충남’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 “스쿨존 내 안전사각지대 없어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홍재표 부의장(태안1)이 단속장비 뿐만 아닌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스쿨존 내 단속장비 확대는 물론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 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의장이 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 총 694개소 중 과속만 단속하는 무인카메라는 5개소(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재표 의원

홍 부의장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길을 건너는 아이들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스쿨존 내 속도·신호위반 단속장비 설치와 함께 안전펜스 설치 등 아이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른의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기존 설치계획보다 사업 완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 충남경찰청과 힘을 모아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생태계 복원해 삶의 질 높이자”

충남도의회가 다양한 동식물이 어우러진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 구축에 나선다.

양금봉 의원(서천2)은 지난달 27일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생물다양성 전략과 보전·훼손된 생태계 복원 시책 수립,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증진, 민간단체 육성·지원, 생물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독특한 생물 군집과 에너지 이동, 물질 순환체계를 갖춘 각 생태계는 전체 생물권에 영향을 미친다”며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

하면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고 우리의 생존도 위협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임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물다양성은 보통 ‘어떤 지역의 유전자, 종, 생태계의 총체’로 이해되지만, 좀 더 자세한 정의로는 1989년 세계자연보호재단이 규정한 ‘수백만 여 종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이 가진 유전자,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만드는 생태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 지구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이 있다.



# 충청남도의회가 꿈꾸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행복**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경제위기 극복에 힘모으자”

### 농어민수당 등 25개 안전 심의 도민 안전 위한 대응책 점검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지난달 21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5개 안전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정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도내 임시생활숙소에 머물고 있는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조치가 해제된 17일 이후로 연기하고 감염병 대응 상황 점검과 경제 위축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안도 심의했다.

농어민수당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인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도 산하 공공기관 재직 노동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제318회 임시회를 연기·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자의 기관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해 관련 조례안’이 이날 임시회에서 통과되기 위한 ‘충남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또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양봉산업 진흥,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 등을 위

한 조례안과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충남 현안사업의 적극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유병국 의장은 “현재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지 소망한다”며 “어려운 지역 여건에도 동포애와 인류애로 중국 우한 교민 수용에 성원해 준 아산시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 기간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점검하고 올 한 해 도정과 교육행정 방향도 면밀히 살폈다”며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올해도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4차 항만계획에 충남 현안 적극 반영하라”

### 충남 신청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 충청남도 신청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계양 의원(안 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비례)은 건의문을 통해 “무역의 99%를 차지하는 해운항만 발전은 지역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충남의 제조업은 전국에서

3위이지만 항만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대부분의 제품들이 타시도 항만을 경유해 수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도시 미지정, 서해선 일부 구간 단선화 및 신안산선과 직결 실패 등으로 도민과 도내 기업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남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바다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

했다”며 “국가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올해 확정되는 항만기본계획에 충남이 신청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다시 4차 항만계획이 불균형적으로 반영된다면 당진은 인근 항만보다 20년 이상 뒤쳐질 것”이라며 “정부는 대통령의 약속과 충남도 의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해양수산부와 지역 국회의원실 등에 전달된다.

## 318회 임시회 연기·단축 결정

###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회 의사일정을 조정한다.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오후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문화체육부지사 등 관계 공무원들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개최 예정이던 제318회 임시회를 연기·단축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된 도정질문은 취소하고 민생과 밀접하거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만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 시기와 일정은 감염병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임시회 기간에 최소 인원만 참석토록 조치하는 한편 의정토론회와 의원 연구모임 등 각종 행사 일정도 무기

한 연기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충남도의회 청사 내 긴급 소독작업과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 지하1층 주출입문만 개방,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출입자 이상 유무 측정 등 자체 차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병국 의장은 “청정지역이었던 충남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더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회 일정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성립전 예산 사용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 방안을 논의하고 도민 대상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 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확진자 대규모 발생에 대비한 민간 활용 모니터링 대책 마련과 확진자 동선 신속 파악, 자녀 돌봄을 위한 기업체의 재택 근무 협조 요청을 모색했다.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 한반도 평화경제 정착 기대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최근 열어붙은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정착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2017년 개성공단 2차 중단조치 후 이어진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이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시작으로 평창동계 올림픽 대표단 파견, 제3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회담),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평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전 의원은 “남북평화와 번영의 상징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시작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각

각 4년, 12년째 중단된 상황”이라며 “9.19 평화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우선 정상화 대책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한의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를 유도하고 세계 각국에서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도민 체감’ 정책 새 밑그림

### 정책위, 올해 첫 정기회의 개최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숙)가 올해 체감 가능한 정책 발굴을 위한 새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다.

정책위는 지난달 21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김명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책위는 지난해 추진한 소위원회 자문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운영 방향과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방향 등 도의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명숙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1월 출범한 정책위는 명실상부한 도의회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다”며 “정책위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회로 나아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범 2년차를 맞아 의정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책위 활성화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검토

###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 참여

### 도·시·군 간 유기적 협력 필요

충남도의회 김연 위원장(천안)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달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장과 의 간담회’에 참석해 ‘복지수도 충남’으로의 도약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시·군 사회복지협의

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으로써 도 지원 조례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정기 계통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현장 복지수요 대응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도 조례 제정을 통한 협의회 재정 안정화와 사업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시·군 사

회복지협의회장들은 “사회복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푸드뱅크 운영, 무료 이동세탁 사업 등 지역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협의회 역할을 정립하고 도·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연 위원장은 “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